

HERI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행복심포지엄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꿈\_이익을 넘어 유익으로’

-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요일) 오후 2~6시
- 장소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 주최 및 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충남연구원
- 후원 한겨레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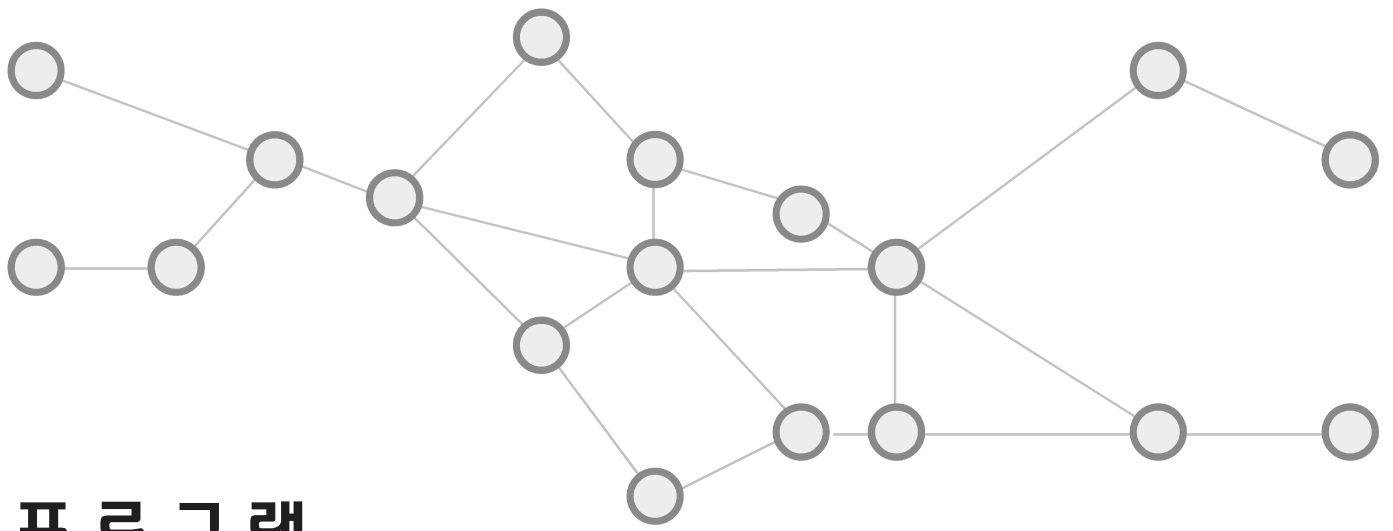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충남연구원

심 포 지 엄

Hankyoreh Economy & Society Research Institute







## 프로그램

개회사 및 인사말 (14:00~14:10)	
라운드 테이블 (14:10~15:20)	
사회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패널	안희정(충남도지사) 한 준(연세대 교수) 강수돌(고려대 교수)
Session 1 더불어 행복한 경제는 가능한가? (15:30~16:50)	
좌장	박진도 (전충남연구원 원장)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에서의 행복_행복경제학의 시사점 » 유정식(연세대 교수)</li> <li>• 행복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 구교준(고려대 교수), 임재영(고려대 교수),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li> <li>• 진정한 행복한 삶의 방식, 사회적경제 » 김종수(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지훈(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li> </ul>
토론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Session 2 우리사회 행복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16:50~18:00)	
좌장	강현수(충남연구원 원장)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 연구 동향과 행복 정책의 모색 » 고승희(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li> <li>• 무엇이 우리사회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가_행복조사를 중심으로 »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li> </ul>
토론	변미리(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이영문(공주국립병원 원장)



## CONTENTS

# 목 차

### Session 1 더불어 행복한 경제는 가능한가? ..... 03

#### 발제

- 한국사회에서의 행복 \_ 행복경제학의 시사점 >>> 유정식(연세대 교수)
- 행복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 구교준(고려대 교수), 임재영(고려대 교수),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진정한 행복한 삶의 방식, 사회적경제  
>>> 김종수(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지훈(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 토론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Session 2 우리사회 행복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 55

#### 발제

- 행복 연구 동향과 행복 정책의 모색 >>> 고승희(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 무엇이 우리사회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_ 행복조사를 중심으로  
>>>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토론

- 변미리(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 이영문(공주국립병원 원장)



## Session 1

# 더불어 행복한 경제는 가능한가?

### 발제

- 한국사회에서의 행복 \_ 행복경제학의 시사점 >>> 유정식(연세대 교수)
- 행복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 구교준(고려대 교수), 임재영(고려대 교수),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진정한 행복한 삶의 방식, 사회적경제  
>>> 김종수(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지훈(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 토론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한국사회에서의 행복 : 행복경제학의 시사점

유정식 (연세대)

## 목차

1. 왜 ‘행복’인가 ?
2. ‘행복’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가 ?
3. 행복경제학을 통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 ?
4. 한국사회에서의 행복문제 :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

## 1. 왜 ‘행복’인가 ?

최근 이코노미스트의 한국주재기자로 한국사회를 면밀히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던 한 젊은 영국인이 한국에 관한 책을 발표했는데 그 원제목이 “Korea: The Impossible Country”여서 매우 흥미롭게 그 책을 읽은 기억이 있다. 우리말로로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다니엘 튜더/노정태 역)로 번역되었는데 이 또한 한국 사회를 아주 효과적으로 묘사한 번역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의 역동적 변화는 그야말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변혁이었고 우리는 참으로 세상사람들이 부러워 할만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으며 희망이 없는 가장 가난하고 분단된 나라로 시작하여 이제까지 성취한 것들은 실로 눈부신 것이다. 폐허로부터 일어나 하이텍 분야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를 여러 개 갖게 되었고, 남한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남을 돕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문화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성취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그 배경으로 든다. ‘다이나믹 코리아’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2002년 월드컵때의 붉은 악마와 빨간 색 열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전국민의 열광속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품어낸 열기를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이나믹 코리아의 뒤편에는 그 긍정적인 열기에 못지 않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 청문회나 SNS를 통한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무자비한 인신공격, 이념과 지역, 학벌이나 외모에 따른 심각한 차별과 낙인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중심없이 여론이 급격하게 쏠리고 사람들이 그 여론에 휩쓸려 가는 현상들도 흔하게 관찰된다. 다이나믹 코리아의 뒷면에 있는 이러한 열기는 흔히 ‘냄비근성’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어 왔다. 한국 사람들에게 유별나게 주어진 남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에너지는 때로는 신명과 대동정신으로, 때로는 일부 사람들이나 그룹에 대한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한국사회는 밝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모습과 어두운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고 전근대적인 모습으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유정식 외 2012).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나라 (the impossible country)라는 표현(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은 나라라는 뜻일 수도 있다. 중의적 표현)은 이러한 불가사의한 한국의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제3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한국 사회에서의 탈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기적을 이루었지만 희망을 잃었다’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적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남들보다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남들보다 훨씬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일상을 보면 참 고단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유치원부터 시작된 남들과의 경쟁은 전쟁과도 같다. 살인적인 공부시간과 노동시간, 숨가쁘게 우리를 몰아치는 경쟁 속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내신을 챙기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선행학습을 하고,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심지어는 아랍어까지 생소한 단어를 머리에 우겨넣어 외국어 인증 등급을 올려야 하고, 여기에 더해 온갖 대회에 나가 각종 상을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보라. 그런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유치원때부터 그런 삭막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입시전쟁을 치루고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면서 대학을 마친 후에는 취업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운이 좋아 그 전쟁마저 승리한다고 해도 저성장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이 곧 우리를 엄습한다. 아이를 낳지 않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며 최악의 노인 빈곤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속살을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기적을 이룬 것인지 알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성과를 얻고 생활수준이 빠르게 개선되며 노력한 대가를 어느 정도 손에 쥐 수 있다면 치열한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고단한 삶을 그래도 견뎌내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다.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저성장 속에서 시장경쟁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이나믹 코리아’ 보다는 ‘냄비근성’이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의 남에 대한 공격성은 강화되고 이념, 지역, 학력, 소득, 직업을 달리하는 사회계층 사이의 적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삭막한 경쟁상황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부모들이 노후의 안정된 삶을 반납하면서까지 아이들의 사교육 전쟁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득한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동료 학생들을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상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삭막한 경쟁속에서 이겨내는 비법들을 전수받고 있다. 적당한 경쟁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끊임없이 훈련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잘 조정되지 않은 고삐풀린 경쟁은 ‘제살깎기’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행복’ 담론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산



물이다. 모든 사람들이 삭막한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니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 2. ‘행복’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가 ?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행가 가사에도 있듯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네틀 (Nettle, 2005)에 의하면 행복의 세 가지 수준을 구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첫째, 순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감정. 둘째, 삶에 대한 전반적인 충족감. 셋째, 자신의 가능성을 계발하고 채우면서 얻는 삶의 질. 이러한 개념들은 각각 ‘행복’(happiness), ‘삶에 대한 만족’ (life satisfaction), ‘좋은 삶’ (eudaemonia)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렇듯 행복이라는 용어는 다차원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심리학에서는 흔히 이러한 행복의 측면들을 설문문을 통해 주관적인 안녕감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첫째의 개념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경우 행복을 느끼는 순간과 그것에 대해 설문하는 순간의 괴리 때문에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사후에 보고된 주관적 안녕감 수치와 즉각적으로 얻는 생리적 안녕감 측정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서 보다 유용한 정보들을 가려낼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을 포착하기 위해 행복도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일정한 리커트 스케일로 표현하게 하는 방식 (질문지법), 포괄적 만족도 조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실시간 실제 경험에서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경험에 기초한 표본추출법), 어느 날의 경험을 서술한 자료를 그 다음날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서 수집하는 방식 (일상 재구성법), 어느 하루 중에 불쾌한 상태로 지내는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 (U 지표), 뇌 활동을 직접 자기공명영상으로 촬영하여 행복한 정도를 포착하는 방식 (뇌촬영) 등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이 얼마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된 주관적 안녕감을 바로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 비교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관적 안녕감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문제들을 계량 방법론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별 비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을 보완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가별 비교를 할 때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이 갖는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을 간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총합하여 행복수준을 유추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절충안으로 주관적 행복수준을 설문으로 구하고 이와 함께 객관적인 지표를 총합하여 행복지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주관적 안녕감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구한 대표적인 행복지수로 세계가치 조사 (World Values Survey)의 지수를 들 수 있다. 이 기관에서는 전세계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각국 국민들의 가치관을 다양한 측면으로 설문하여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가치관 항목 중에 행복과 관련된 지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행복의 감정’ (feeling of happiness) 으로 4등급으로 분류하여 설문하고 있으며, 둘째는 ‘삶에 대한 만족’ (life satisfaction)으로 10등급으로 분류하여 설문한다. 이 조사는 가족, 친구, 근로, 여가시간, 종교, 정치 등의 중요성, 주관적 건강상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묻고 있으며 이를 시계열 및 횡단면으로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에 대해 국가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계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행복의 감정은 시계열적으로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삶에 대한 만족은 시계열적으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후 매년 실시된 서울서베이 조사가 대표적이다. 20,000가구 (45,506명)을 표본으로 하는 대규모 가구방문조사로 인구, 경제 도시발전과 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 가족, 환경, 교통, 정보와 참여, 안전과 재난, 가치와 의식 등 총 12개 분야별 지표에 관련된 사항을 설문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서울시민의 종합행복지수 (건강상태, 가정생활,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사회생활 등을 설문하여 평균), 생활환경 만족도 등을 행복지수로 간주할 수 있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의 행복지수는 대표적으로 Osberg and Sharpe (2002)의 경제행복지수 (Index of Well-being), 오쿤의 불행지수 (Misery Index), UNDP의 인적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LG 경제연구원의 사회경제고통지수와 생활경제고통지수,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행복지수 등을 들 수 있다. 2013년 국가미래연구원이 보고한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이 지수는 1)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 1인당 소비지출, 교양 및 오락비 지출, 정부부채,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가계부채 2) 삶의 질 :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 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 3)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 중산층 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으로 행복에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한 후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각 항목의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주어진 지표들을 활용하여 측정되는데 부패와 신뢰수준의 경우에만 국제투명성 기구의 설문결과인 부패지수를 원용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쓴다.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지표를 총합하여 구한 행복지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이다. 이는 GDP, 기대수명, 궤롭이 실시한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 부패 등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한 국가행복지수이다. 2015년에 발표된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984점을 얻어 158개 국가 중 47위에 랭크되었다. 유엔의 세계행복지수의 최상위 순위에는 익히 짐작하는 대로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유럽이나 북미 국

가들이 있고 반면에 가장 불행한 나라 10개국 중에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8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신경경제단 (New Economic Foundation) 의 HPI (Happy Planet Index) 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즉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경험된 안녕감 (experienced well-being), 생태보전 (ecological footprint) 등의 지수들을 총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들었는데 2015년 자료를 보면 한국은 151개국 중 60등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수로 보면 코스타리카, 베트남, 콜롬비아, 벨리즈,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가 최상위권에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생태보전이 잘된 후진국, 그리고/또는 경험된 안녕감이 큰 남미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OECD 의 국가후생지수 (National Index of Well-being)는 경제적 자원 및 연관요인, 사회적 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적 요인 등을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구하고 여기에 주관적 생활만족도를 총합하여 지수를 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를 활용하여 보건 및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한 후 가중치를 확정하여 분석하였는데 2006년의 경우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순으로 최상위그룹을 구성하였고 한국은 OECD 30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요인-자립 범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는 여러모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보자. 이 지수는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항목을 설정하고 이 핵심항목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세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항목은 4개의 핵심항목 (좋은 지배구조 (good governance),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문화보전 (cultural preservation), 환경보전 (environmental conservation))으로 시작하여 9개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편하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 건강 (health), 교육 (education), 시간사용 (time use), 문화적 다양성 및 회복 탄력성 (cultural diversity and resilience), 좋은 지배구조 (good governance), 공동체의 활력 (community vitality), 생태계 다양성과 회복 탄력성 (ecological diversity and resilience), 그리고 생활수준 (living standards) 등이다<sup>1)</sup>.

약 8000명 정도의 부탄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패널로 구한 후 만족/불만족 또는 충분/불충분 정도를 도출하고 각 항목을 가중치만큼 곱해서 합산한다. 여기서 만족 정도는 일정한 수준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계산하며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 같게 취급한다. 77%-100%는 아주 행복, 66-76%는 충분히 행복, 50-65%

1) 각 항목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심리적 안녕감 : 삶에 대한 만족도 (1/3), 긍정적 감정 (1/6), 부정적 감정 (1/6), 정신적 충실감 (1/3) 건강 : 스스로 말하는 건강상태 (1/10), 건강하게 산 기간 (3/10), 지체부자유 (3/10), 정신적 건강 (3/10)시간 사용 : 근로 (1/2), 수면 (1/2) 교육 : 문자해독 (3/10), 교육기간 (3/10), 지식 (1/5), 가치 (1/5) 문화적 다양성과 회복탄력성 : 예술활동 기법 (3/10), 문화적 참여 (3/10), 토속어 구사능력 (1/5), 행동규범 (1/5) 좋은 지배구조 : 정치적 참여 (2/5), 서비스 (2/5), 지배구조의 성과 (1/10), 기본권 (1/10) 공동체의 활력 : 기부 (시간과 돈)(3/10), 안전 (3/10), 공동체내의 관계 (1/5), 가족 (1/5) 생태다양성과 회복탄력성 : 야생 훼손 (2/5), 도시문제 (2/5), 환경에 대한 책임성 (1/10), 생태적 문제 (1/10) 생활수준 : 소득 (1/3), 자산 (1/3) 주택 (1/3)

는 약간 행복, 50% 이하는 불행으로 간주한다. 국민행복지수는 아주 행복, 충분히 행복으로 답한 사람들의 비중 (a)에 약간 행복 + 불행으로 답한 사람들의 평균 행복수치 (b) 와 이들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c) 를 곱한 것으로 구한다. (즉  $a+b \cdot c$ ) 여기서 행복수치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즉 충분한가의 여부)에 가중치를 곱해 더해 구한 값이므로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값이다. 이 행복지수는 각 항목을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만족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이분법으로 구했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충족도의 크기가 다른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다양한 차원의 항목들을 고루 질문하기 때문에 단순한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행복도조사 (예컨대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한가를 0-10의 수치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법) 보다는 항목별 변화의 구체적인 추이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별, 나이별, 성별, 결혼유무별 기타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각 항목에 따른 유형별 시계열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부탄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민행복지수를 구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지역 : 지역별 격차가 있으며 지역별 국민행복지수의 변화가 다르다. 2) 도농: 도시의 국민행복지수가 높으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3) 교육 :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으나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 수준상승속도가 빨라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4) 나이 : 30세이하의 사람들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으며 70세 이상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지만 그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5) 결혼 : 결혼을 한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 (미혼과 승려)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으며<sup>2)</sup>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이 가장 낮다 6) 직업 : 농부들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는데 특히 실업자보다도 낮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부탄의 국민행복지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 근로와 삶을 잘 조화시키고 있는가 ?
- 2) 국민들의 삶이 좀 더 향상되고 있는가 ?
- 3) 우리문화가 좀 더 역동적인가 ?
- 4) 지배구조는 개선되었는가 ?
- 5) 우리 사회의 공동체들은 좀 더 끈끈하게 통합되어 있는가 ?
- 6) 생태계는 건강한가 ?
- 7)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는가 ?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행복지수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행복지수의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연구에서의 실증결과와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행복연구에서는 일관되게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3. 행복경제학을 통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 ?

위에서 행복개념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논의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행복이란 주관적인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포착하는가는 여전한 논란거리일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행복지수 추계방식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에 주관적 만족도를 끼워 넣고 총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행복경제학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방식을 통해 행복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분석한다. 즉 주관적 안녕감을 설문으로 조사해서 피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얻은 다양한 행복지수 추계방식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고안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볼 때 객관적 지표를 주관적 지표와 총합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방식이다. 주관적 지표에는 객관적 지표를 모두 감안한 행복주체들의 생각과 감정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계로 표현되는 행복지수를 국가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포착된 행복수준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회적 문제가 이러한 행복수준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보다 풍부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을 다양한 설문방식을 통해 측정된 후 이러한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인 행복경제학의 연구방식을 통해 얻은 통찰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sup>3)</sup>

- 1)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 2) 소득, 고용, 가격안정, 공정한 소득분배 등 경제적 요인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다.
- 3) 가족, 우정, 사회적 연대감 등 비물질적 요인들도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다.
- 4)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각종 사건들이 발생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행복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조정되는 속도나 범위는 각 사건의 속성에 따라 다르다.
- 5)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앞서고자 하며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 6) 일반적으로 결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다.
- 7) 아이들 때문에 부모의 행복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면 부모의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8) TV를 많이 보는 것은 활동적인 사람들의 행복감을 감소시킨다.
- 9)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 남을 돕는 것은 행복감을 크게 만든다.
- 10) 사람들은 과거는 지나치게 어둡게 묘사하고, 미래는 지나치게 밝게 예측하는 체계적인 오류를 범한다.

---

3) Frey (2008) 참조

- 11) 사람들은 결과보다 절차를 통해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다.
- 12) 문화의 차이는 행복결정요인들의 차이를 낳지 않는다.
- 13) 정치참여는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 14)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할 때 행복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행복경제학이 밝혀낸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적응 (adaptation)과 열망 (aspiration) 의 개념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쾌락에 적응을 빨리하며 사회적 비교 때문에 곧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나 지위와 같은 외생적 속성은 사랑, 우정, 가족관계 등과 같은 내생적 속성보다 쾌락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들의 변화에 더 빠르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의 열망수준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실제 미래의 순간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현재상태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쉽게 적응하고 또 다시 더 큰 열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 4. 한국사회에서의 행복 :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

이제 한국사회에서 행복논의를 할 때 이러한 행복경제학의 통찰을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논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한국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음의 수치들을 생각해 보자<sup>4)</sup>.

- 1) 국민 복지수준 OECD 국가 34개국 중 33위 :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자살률, 조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환경오염 등에 가중치를 매겨 산정한 행복지수 (연합뉴스 2014년 2월 10일)
- 2)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를 모델로 측정한 아동 행복지수에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함.(한겨레 2014년 11월 4일)
- 3) 한국의 출산율 최하위 :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에 그쳐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연합뉴스 2014년 6월 16일)
- 4) 한국의 평균 수면시간 최하위 :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수면 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프랑스 8시간 50분에 비해 1시간 이상 적게 수면 (국민일보 2014년 11월 5일)

4) 헌팅톤 포스트, 한겨레,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매체 참조. 한겨레 2015년 12월 4일 기사에서는 한국 현실과 관계된 부정적 통계자료를 60여개 제시한 바 있다.

5)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 최상위권 : OECD 평균의 1.3배, 네덜란드 비교하면 1.6배이며 시간제 근로자 증가로 2008년부터 1위 졸업하고 멕시코에 이어 2위 (연합뉴스 2014년 8월 25일)

6) 한국의 자살률 OECD 최상위 : 2014년 'OECD Fact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등. OECD 평균은 12.4명인 반면, 한국은 10만명 당 33명이 자살 (오마이뉴스, 2014년 8월 25일)

7) 한국의 노인빈곤율 최하위 :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014년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은 최하위권 (연합뉴스 2014년 3월 14일)

요약하자면 아이들은 불행하고, 노인은 빈곤하며, 아이는 낳지 않고, 자살을 많이 하며, 잠은 덜 자고, 일은 가장 오래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10.4 %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연합뉴스 2014년 2월 5일), 부패 정도가 심하며 (2013년 OECD국가중 27위, 동아일보 2014년 10월 27일), 조세는 소득 불평등을 거의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세전 빈곤율 0.173 %, 세후 빈곤율 0.149 % 로 그 차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연합뉴스 2014년 8월 7일), 노조조직률은 최하위권이고 (2013년 10.3 %로 OECD 30개국 중 28위, 한국경제 TV 2014년 1월 16일), 성인의 학습전략 및 역량은 최하위권 (세계일보 2014년 8월 20일)이다. 고용안정성도 낮고,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며, 근로의욕도 낮고, 가계 빚이 많다 (한겨레 2015년 12월 4일)

위와 같은 사실에 기반한다면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복경제학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먼저 행복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처방에 대해 생각해 보자. 행복경제학은 선호바꾸기, 여가시간 확충, 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한 실업률 하락, 가족 가치 유지, TV광고 억제 및 내용 제약, 환경개선, 신뢰강조, 테러 및 범죄 억제 등의 정책을 제시한다. 이들은 모두 행복연구에서 얻은 실증적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제시된 것들이다.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오류를 막기 위한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며 (선호바꾸기), 파트타임 및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실업의 심각한 고통을 해소하는 동시에 과로를 예방해야 하고 (여가시간 확충), 인플레이션보다 실업이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실업이 1.7배 고통스럽다고 추정)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한 실업률 하락), 결혼이 행복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장려하고 (가족가치 유지), TV를 통해 잘난 사람들과의 비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불행해지므로 이를 억제해야 하며 (TV광고 억제 및 내용 제약), 환경훼손이 행복도를 낮추므로 이를 개선해야 하고 (환경개선), 사회적 관계를 떨어뜨리는 이동성을 억제하고 충직성이나 신뢰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신뢰성 강조), 테러와 범죄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억제해야 한다 (테러 및 범죄 방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들은 직관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행복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들은 주로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므로 우리 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행복연구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높은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앞에서 언급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행복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적응과 열망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속담처럼 한국 사람들이 ‘울창이적’ 생각을 하지 않고, 배가 고픈 것보다 ‘배가 아픈 것’을 더 힘들어 한다면 한국사회에서 적응과 열망의 사이클은 다른 사회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가 빠르고 남에 대한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소득이나 지위 등 외생적인 속성을 추구하는 경쟁은 ‘쥐들의 경주 (rat race)’ 와 같이 모두에게 허망한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위추구경쟁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경우 이러한 적응과 열망의 사이클이 유독 빠를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은 앞으로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2) 위의 추정이 맞다면 경제적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한국사람들의 행복수준이 올라가기 어렵다. 다른 나라보다 돈, 지위 등 외생적 속성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적응의 정도가 빠르고 적응할수록 더 높이 열망한다면 성장의 가치가 행복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욕망의 흐름이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 불평등, 저성장 등 외형적인 경제현상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물질적인 욕망의 충족만으로 불행감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면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더 필요한가?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은 사회적 인정 (social recognition) 이다. 한국사람들이 남과의 비교에 민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가능한 가설은 사회적으로 낙오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각종 사회적 낙인 (‘종북’, ‘지잡대’, ‘루저’, ‘수구꼴통’, ‘흙수저’ 등등)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집단주의적 속성을 지닌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만큼 불행감을 유발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제도화하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능력과 관련하여 각종 차별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는 보통의 한국인들이 이러한 배려를 몸에 익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적응과 열망의 사이클과 관련하여 불평등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은 결과이므로 결과에 대해 어떤 경우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는 많은 사



회의 속제이다. 일부에서는 불평등은 불가피하며 심지어 어느 정도는 좋은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처럼 남들과 비교에 민감할수록 불평등에 따라 더 노력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의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는 여전한 논란거리이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과다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행복과 관련해서 본다면 불평등이 적응과 열망의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가 주목된다. 불평등은 적응과 열망의 사이클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불평등이 커질수록 적응은 빨라질까? 열망은 더 빠르게 증가할까? 계층별로 이는 어떻게 다를까?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실증적으로 검토되고 분석된다면 행복에 미치는 불평등의 영향을 보다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사회에서 남들과 비교에 가장 민감한 영역은 학벌과 직업인 것으로 보인다. 좋은 학교나 좋은 직업에 대한 생각이 획일적이고 위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직업의 귀천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위계적인가? 이러한 직업의식은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러한 학벌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획일적 의식은 지위재(positional good)로서 학벌과 직업이 갖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강화시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위재로서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크기는 차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찰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SNS가 확산되고 정보통신기기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위재의 노출빈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반면에 민주화와 개인주의가 정착되면서 차이에 대한 수용정도는 일반적으로 커지고 있다(예: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 문제는 좀 더 지배적인 위계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젊은 층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예: 대학생들의 학벌 서열논쟁, 의대 집중). 직업의식에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직역사이의 위계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예: 9급 공무원에 박사학위자가 지원한 것이 화제가 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공무원 선호도가 더욱 강고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공무원 내부에서의 위계보다 공무원과 다른 직종사이의 위계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변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민주화와 깊숙한 관련이 있다). 고용의 질이 문제되는 이유는 임금의 차이나 계약기간의 차이에도 있지만 직업의 위계와 관련이 깊다. ‘좋은’ 직업은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직업의 위계를 결정하는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직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가를 파악하면 그 사회의 편견, 또는 질서를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은 공무원, 교사, 의사, 법률가 등과 같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 전통적 업종이다.

다른 부문에서의 차이에 대한 수용정도는 커지고 있는데 왜 직업이나 학벌에 대한 위계의식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을까? 직업이나 학벌 위계의식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부정적 외부효과가 여전히 강

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5) 한국사회에서 아이에 대한 선호가 급격하게 변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1970-80년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국가적 아젠다였을 정도로 아이를 덜 낳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불과 몇 십년 사이에 이렇듯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본다면 결국 아이를 기르는 기회비용은 증가했는데 아이로부터 얻는 편익이나 만족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다. 왜 한국의 경우 이 현상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가왔을까 ? 아이를 통해 노후를 보장받는 사회적 보험으로서의 편익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사라졌으므로 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의 특이점은 아이를 기르는데 따르는 기쁨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나쁜 학교를 가서 차별 받지 않을까 ? 좋지 않은 직장 때문에 낙인찍히지 않을까 ?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 아이를 기르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의 증가 때문에 출산률이 저하되었다는 분석도 나름 타당성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쁨보다는 근심에 가깝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아이를 기르는데 사교육 등을 통해 돈이 많이 들고 보육문제 등의 문제가 심각해져서일 수도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것은 아이들이 ‘걱정’의 근원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 중 ‘자녀 리스크’가 가장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경제학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들 때문에 부모의 행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정책과 병행해서 이러한 걱정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6) 왜 한국 사람들은 성형을 많이 하고 몸을 가꾸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쓸까 ? 흔한 답변은 외모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좋은 외모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는 견해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효과는 보편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모의 유리함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외모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라는 가설은 한국사회의 지나친 외모열풍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에서도 역시 문제는 위계화와 획일화에 있다. 좋은 외모가 사람을 판별하는 지배적인 기준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외모상이 획일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외모에 따른 차별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고3이 끝나면 성형외과를 찾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 또 다른 이유로 한국의 TV 문화를 들 수 있다. 모바일기기의 보급으로 어디에서나 TV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에서 외모찬양과 외모비하는 일상적으로 표출된다. 모바일 시청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TV콘텐츠는 청소년들의 일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뛰어난 외모의 연예인들을 매일 마주하고 외모비하가 ‘솔직함’으로 포장되는 현실을 매일 접하면서 이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위계화되

고 획일화되고 있다. 행복연구에서 보이고 있듯 한국사회에서 TV시청이 행복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7) 복지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에서 제기된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낙인찍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사회적 낙인’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논거이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미국식 철학에 기인한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인식때문이다. 기회의 땅, 미국에서 게으르지 않았다면 가난할 수 없다는 자신감의 산물일 것이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복지수혜자는 게으른 사람, 또는 부족한 사람이다. 한국사회에서 부자는 평균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하는 응답이 지배적이라면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이유가 천운 때문이거나 또는 약자를 강탈했기 때문이라면, 혹은 부모로부터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란 원초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즉 한국사회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면 이는 이미 평균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암묵적인 사회적 동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오히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이재용의 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가” 라는 질문의 배경에는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부자에 대한 반감과 질시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은 무상급식과 부자에 대한 관점에서 상호 모순되는 측면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특이한 한국적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능력이나 노력에 따르는 공평한 경쟁이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패자에게 주어지는 낙인 때문이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운이 없었던, 부자에 의해 강탈당했든간에 일단 가난해지면 이들을 얹보는 사회적 풍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진단은 매우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무상복지와 관련한 이념논쟁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무서운 속살을 엿볼 수 있다.

복지의 문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날로 확대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때문이다. 불평등이 문제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불평등이 클수록 절대빈곤의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이고 둘째,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태도 때문이다. 불평등에 수반되는 빈곤의 문제는 복지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태도는 차이에 대한 평균적인 수용정도와 빈자와 부자간의 상호작용의 빈도나 관찰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훌륭한 복지제도는 차이에 대한 평균적인 수용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모바일기기의 광범위한 발전 때문에 관찰가능성은 매우 커진 상태이다. 이는 불평등의 역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낮추는 것이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훌륭한 복지제도는 불평등에 수반되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행복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와 기부는 행복감을 크게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강제적인 공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발적인 복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한국형 부자들의 자원봉사와 자발적 기여는 사회통합을 이루고 지위재의 외부효과를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윈윈전략이다. 이 점에서 민주적 원리와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한국사회 부유층의 관심이 필요하다.

8)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세대갈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향 2015년 12월 6일)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간 교육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밝혀졌다. 2014년 기준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25-34세 집단에서는 68 %인데 55-64세 집단에서는 17 %로 격차가 무려 51%에 달한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IT기술격차로, 정치적 지지정당의 차이로, 고용과 복지정책에 대한 관점차이로, 향유하는 문화와 사용언어의 차이로 확산되어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이다. 2-30대와 5-60대는 최근 두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정년연장, 연금, 조세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고비고비마다 세대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이에 더해 성향과 인식, 문화의 차이가 겹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대갈등이 가족간 소통부족과 불화의 원인이 되어 가족해체의 원심력 중의 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더 바람직한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하여 결과가 주는 행복감 (결과적 효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행사 과정 자체를 통해 행복감 (절차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더 세밀한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지만 가족내에서의 소통문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가족간에 충분한 소통이 가능해야 가족의 가치를 통한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절차를 통해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미디 프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풍자로 읽을 수 있다. 세대갈등과 가족간 소통의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 대한 행복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논의되지 않은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나 중요한 사회현상들은 대부분 망라된 것으로 믿고 싶다. 많은 내용들은 한국사회의 불행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불행을 없애는 것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지만 한국사람들의 행복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행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불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할 것은 고용의 문제이다. 행복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실업은 단순한 소득기회의 상

실로만 볼 수 없다. 사회적 비교에 민감한 사회일수록 실업에 따른 차별과 낙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부족한 소득과 더불어 위계적 차별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우선순위는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 성장은 이러한 고통을 줄여주는 경우에만 유의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성장, 그리고 직장없는 성장은 이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한국사회에서의 행복에 물질과 성장이 기여할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외생적 속성인 소득과 지위에 대한 적응과 열망의 사이클이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이루어도 더 빨리 적응하고 앞선 남들과 비교 때문에 더욱 더 많이 열망하는” 사회라면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 크게 영양가가 없는 일이다. 그런 성취가 남을 넘어뜨리고 치열하고 삭막한 경쟁에서 이겨야 가능한 것이라면 더더욱. 뚜렷한 성과없이 모든 사람을 고단하게 하는 한국형 경쟁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국가미래연구원 (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용하, 윤강재, 김계연 (2009),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주하, 김상봉(2012), "한국의 경제행복지수의 측정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1-28  
 삼성경제연구소(2010), 경제행복도지수로 본 한국경제, CEO Information, 제750호.  
 서울특별시(2014), 2013 「서울서베이」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21세기 북스  
 유정식, 홍훈, 장종익, 박종현 (2012), 한국형 모델 : 다이나믹 코리아와 냄비근성,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현대경제연구원(2011), 제8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 한국경제주평,  
 제8호.  
 홍훈, 유정식 (2013), 한국형 모델 II : 학벌과 교육의 정치경제학,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Gross National Happiness,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articles/>  
 Frey, B.S. (2008), Happiness : A Revolution in Economics, MIT Press  
 (유정식 외 (공역), 행복, 경제학의 혁명, 부키)

- McMahon, D.M. (2006), Happiness : A History, Grove Press
- Nettle, D. (2005), The Science Behind Your Smile, Oxford University Press
- New Economic Foundation, The Happy Planet Index, Annual Report.
- Osberg, L. and Sharpe, A.(2002), “An index of Economic Well-being for Selected OEC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8(3), 291-316.
- Sharpe A. (2005), “A Survey of Indicators of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CPRN.
- Stiglitz, J. E., Sen, A., and Fitoussi, J.(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 Tudor, D. (2012), Korea : The Impossible Country, Tuttle Publishing Co.  
(노정태 역, 기적을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 UN, World Happiness Report, <http://worldhappiness.report/>
- World Values Survey, <http://worldhappiness.report/>

# 행복이 정책목표가 될 수 있는가?

2015. 12. 11.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임재영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DI SCHOOL

## 연구의 배경 (Why happiness?)

- 우리 사회의 양적 성공
  -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
  - 2014년 1인당 국민소득: \$28,180 (한국은행 잠정집계)  
60년 만에 소득 수준이 420배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420배 더 잘 살게 되었는가?
- 우리 사회의 질적 현실
  - 2014년 합계출산율: 1.205 (OECD 최저수준)
  - 2014년 자살율: 27.3 (OECD 최고수준)

## 생각해 볼 문제

- 경제성장이 왜 중요한가?
- 돈의 의미는?



## 맥주 한잔의 가치는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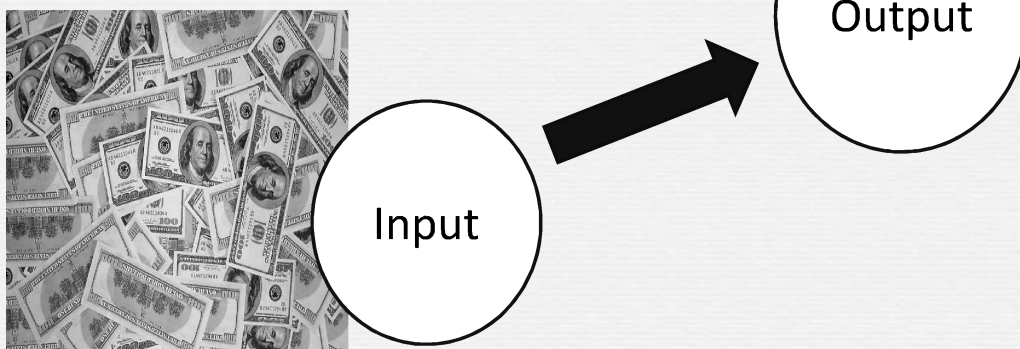






## 그렇다면?

- Material wealth vs. Positive mental status



어쩌면 돈은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어쩌면 돈 이외의 변수가 더 중요할 수도...



1인당 소득: \$2,954 (112/180)  
삶의 만족도 (UNESCO): 8/178



1인당 소득: \$23,113 (32/180)  
삶의 만족도 (UNESCO): 102/178

## 소득이 늘어난다면 더 행복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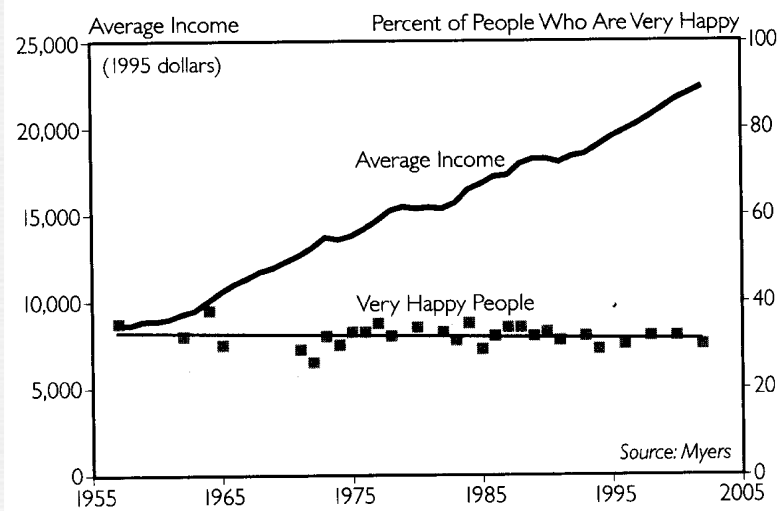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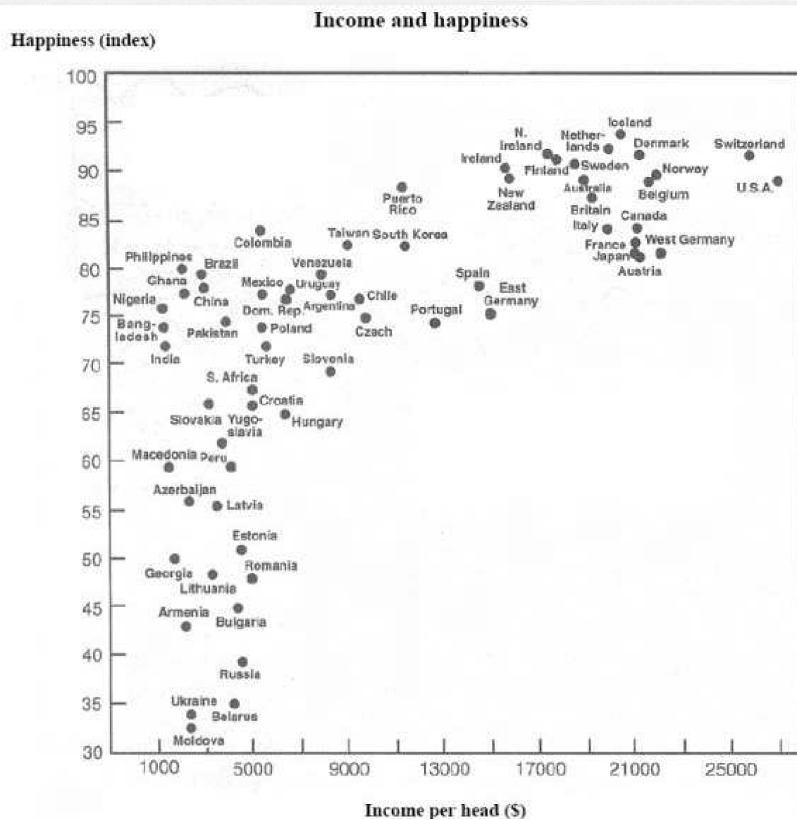


Figure 8-1. Average Income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57-2002

Easterlin 패러독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Source: Inglehart and Klingemann (2000), Figure 7.2 and Table 7.1. Latest year (all in 1990s).

# 소득 정말 중요한가?

(국가단위 분석)

Table 3.1 Regressions to explain average well-being across countries<sup>24</sup> (standardized  $\beta$  statistic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Life evaluation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b>Panel A</b>			
Log GDP per head	0.81 ***	0.40 ***	-0.08
$\bar{R}^2$	0.65	0.15	-0.00
No of countries	153	153	153
<b>Panel B</b>			
Log GDP per head	0.28 **	-0.18	0.22
Health	0.25 **	0.24	0.27
Education	-0.01	-0.18	-0.05
Social support	0.29 ***	0.43 ***	-0.35 ***
Freedom	0.15 ***	0.49 ***	-0.24 **
Corruption	-0.18 ***	0.00	0.23 ***
Divorce etc.	-0.43	-0.09	-0.08
$\bar{R}^2$	0.80	0.52	0.20
No of countries	139	139	139

Significance Levels: (1 tailed tests)

\* 0.05 \*\* 0.01 \*\*\* 0.001

Source: World Happiness Report 2012

\* **Health** is measured by healthy life expectancy\* **Education** is measured by average educational level among adults\* **Social support** i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saying yes to the following question; If you were in trouble, do you have relatives or friends you can count on to help you whenever you need them, or not?\* **Freedom** i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saying yes to the following question; In your country, are you satisfied or dissatisfied with your freedom to choose what you do with your life?\* **Corruption** i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saying yes to the following question; Is corruption widespread within business(and throughout the government) in your country?\* **Divorce** i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people separated, divorced, or widowed.

# 소득 정말 중요한가?

(개인단위 분석)

## Fixed effect regression analysis

(Range of Life satisfaction)

\* GSOEP (0-10) : German Socio-Economic Panel, 1984-2009.

\* BHPS (1~7) :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1996-2008.

The sample used is prime-age (30-55), with the top and bottom 5% of income recipients trimmed.  
Income is household income.

	GSOEP (West)	BHPS
Log of Income (monthly)	0.39* (0.01)	0.13* (0.03)
Female	--	--
Age	-0.16* (0.07)	-0.08 (0.09)
Age <sup>2</sup> /1000	2.97 (1.76)	0.56 (2.13)
Age <sup>3</sup> /1000	-0.02* (0.01)	0.00 (0.01)
Single	-0.07* (0.03)	-0.13* (0.04)
Widowed	-0.44* (0.07)	-0.18* (0.07)
Divorced	0.03 (0.02)	-0.14* (0.03)
Separated	-0.25* (0.03)	-0.34* (0.03)
Unemployed	-0.49* (0.01)	-0.22* (0.03)
Self Employed	-0.01 (0.02)	0.01 (0.02)
Out of the labor force	-0.13* (0.01)	-0.12* (0.02)
Student	-0.14* (0.06)	0.07 (0.06)
Education: High	0.07 (0.05)	-0.07 (0.08)
Education: Medium	0.10* (0.03)	0.13* (0.04)
One child	0.07* (0.01)	0.01 (0.01)
Two children	0.04* (0.02)	0.03 (0.02)
Three + children	0.06* (0.02)	0.06* (0.03)
Health		
Excellent	2.25* (0.03)	1.04* (0.03)
Good	1.92* (0.03)	0.90* (0.03)
Satisfactory	1.51* (0.03)	0.64* (0.03)
Poor	0.93* (0.03)	0.36* (0.03)
Fixed effects	Yes	Yes
Time Dummies	Yes	Yes
Region Dummies	Yes	Yes
Observations	100945	53615
R <sup>2</sup>	0.20	0.09

Note: \* deno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5% level

## 1인당 GDP가 놓치고 있는 것은?

Counts	Does not counts
Cars and houses	Our health
Cigarettes	Our wisdom
Guns and knives	Our compassion
Nuclear weapons	Our children's laugh and joy
Jails for criminals	Joy from learning
Road constructions	Joy from happy marriage
Destruction of the redwoods	Natural wonders
Pornography	Beauty of arts

### GDP는 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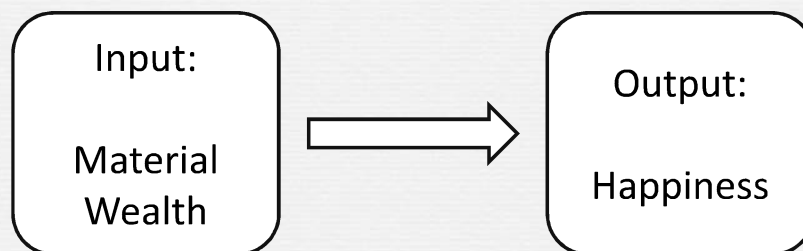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sup>지음</sup>  
박형준 옮김

Mismeasuring  
Our Lives



동녘

## 대안적 방법



“Happiness is fundamental human goal and universal aspiration that GDP by its nature does not reflect (UN, 2011)”

## Easterlin 패러독스의 함의

- 목적함수의 변화: 소득에서 행복으로
- 현실정치와 행정의 관심: 국민행복, 행복지수
- 그러나 행복 개념정의와 측정의 혼란으로 학계의 연구 미흡

## 행복의 근원(locus)

- 인간 외적 요인에서 내적 요인으로
  - 고대 그리스: 행복은 신의 축복
  - 중세: 행복의 근원은 영적인 것으로 신으로 부터 주어짐
  -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신을 닮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
  - 17세기 계몽주의 시대: 개인의 쾌락
  - 18, 19세기: 미국 독립선언, 공리주의



## 행복의 성격(focus) 1.

- Hedonism
  - 행복은 쾌락으로부터 기인함 (그리스 시대 에피큐로스 학파)
  - 쾌락의 심리학적 해석: subjective well-being
    - 개인이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인지적), 긍정적인 감정(정서적)
    - 행복 개념의 모호성 극복하고 행복 연구의 과학화 기여
  - 쾌락의 경제학적 해석: utility
    - 공리주의는 행복을 쾌락을 통해 얻어지는 효용과 동일시
    - 신고전 경제학은 효용개념을 통해 행복을 암묵적으로 이론체계에 포함
    - Easterlin을 거쳐 Kahneman, Frey 등을 중심으로 행복경제학 탄생
  - 심리학(direct) vs. 경제학(indirect)
    - 경제학의 환원주의
    - 경제학의 실증주의 전통

## 행복의 성격(focus) 2.

- Eudaimonism
  - 심리학, 경제학의 행복 연구에 대한 반론
    - hedonic pleasure는 가장 저차원적
    - 행복이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이 주는 기쁨
    - pleasant life vs. meaningful life
  - 새로운 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Seligman)
    - Psychological well-being: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만족감
    - 다차원적 개념: autonomy, growth, self-acceptance, life purpose, etc
  - 새로운 경제학: capability theory (Sen)
    -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 – functioning
    - 바람직한 삶의 functioning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의 집합 - capability

## Happiness Path I: 삶의 상대적 조건

- *hedonic pleasure*의 추구

- Aspiration

- Adaptation

- Treadmill effect

일시적이며 상대적 효과 위주, Zero-Sum

- Main sources: material consumptions

## Happiness Path II: 삶의 절대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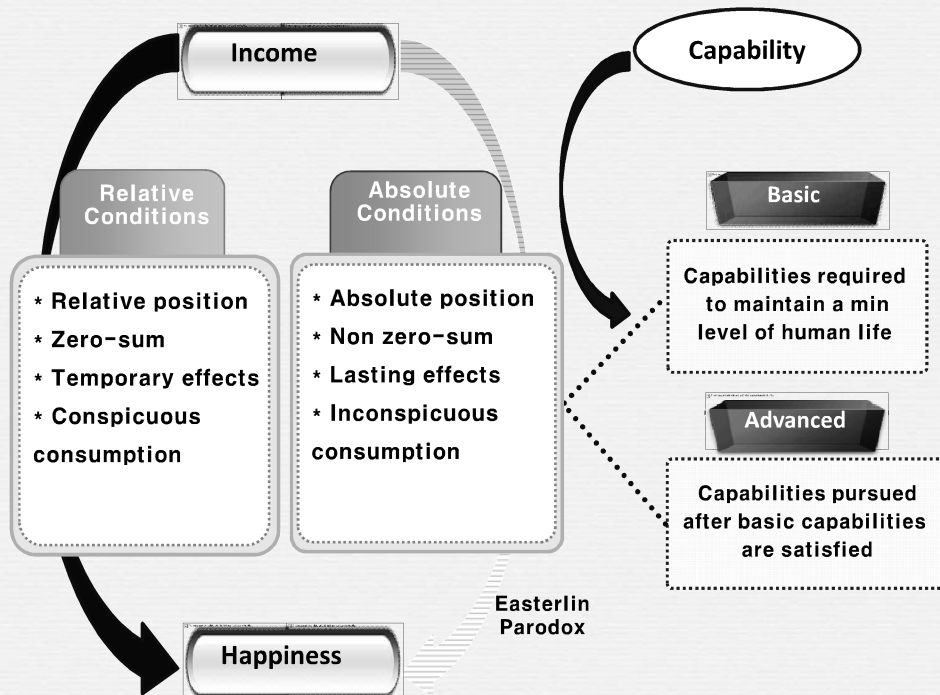
- Looking for *Eudaimonic pleasure*

- Fulfilling one's potential >>> 지속적이며 절대적 효과 위주, Non Zero-Sum

- Main source: Human capabilities and functionings



## 이론적 틀: 물질 조건과 행복



## 센(Amartya Sen)의 역량 이론

- “... wealth is evidently not the good we are seeking; for it is merely useful and for the sake of something else” (Sen)
- In judging the quality of life we should consider what people are able to achieve. Sen then observes that different people and societies typically differ in their capacity to convert income and commodities into valuable achievements.



Neither opulence (income, commodity command) nor utility (happiness, desire fulfillment) constitute or adequately represent human well-being and deprivation. Instead what is required is a more direct approach that focuses on human function(ing)s and the capability to achieve valuable function(ing)s



# 누스바움(Nussbaum)의 역량 이론

- There are a universal and concrete set of capabilities
- Basic Capability
  - Hygiene Factor
    - Being able to be nourished
    - Being able to have shelter
    - Being able to be free from physical harm
- Advanced Capability
  - Inconspicuous consumption
  - Absolute effect
  - Lasting effect
  - Being able to think and reason
  - Being able to play and enjoy leisure
  - Being able to be educated
  - Being able to express oneself freely

## 연구사례1.

일반논문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2호(2014 여름): 317~339

###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구 교 준\*\*

임 재 영

최 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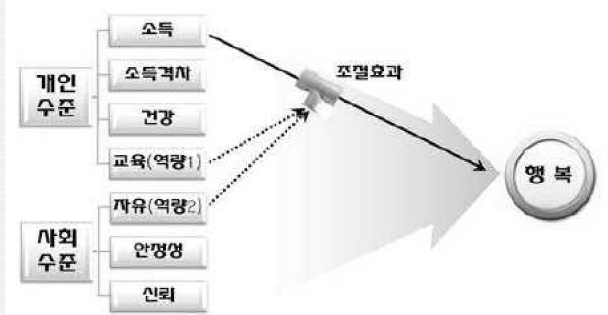
행복의 결정요인은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Easterlin이 40년 전 'Easterlin 패러독스'로 의문을 던진 이래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행복수준은 지난 수십년 간 변화가 없었고 소득이 낮은 중남미 국가들의 행복수준이 소득이 높은 OECD 국가들의 행복수준에 이르거나 그 이상이 되는 등의 예는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본 연구는 Sen이 제시한 삶의 역량 개념을 교육과 자유로 조작화하여 삶의 역량이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즉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는 삶의 역량의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Easterlin 패러독스는 삶의 역량이 가지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 중심의 정책목표 설정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 소득과 함께 삶의 역량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주제어: 행복, 삶의 질, 삶의 역량, Easterlin 패러독스]

〈표 3〉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소득	0.0406** (0.0034)	0.0257** (0.0050)	0.0141** (0.0047)	0.0122** (0.0048)
소득격차		0.0256** (0.0098)	0.0255** (0.0098)	0.0273** (0.0098)
건강		0.0433** (0.0122)	0.0476** (0.0119)	0.0438** (0.0122)
교육		0.0105** (0.0042)	0.0040 (0.0052)	0.0104** (0.0043)
자유		0.0269 (0.0282)	0.0096 (0.0284)	0.0041 (0.0311)
		-0.1566 (0.1104)	-0.1141 (0.1111)	-0.1323 (0.1122)
		0.0108* (0.0066)	0.0036 (0.0067)	0.0083 (0.0076)
			0.0003** (0.0001)	
				0.0015** (0.0007)
		0.66	0.68	0.67

〈그림 1〉 행복 결정요인 모델



## 연구사례2. 핀란드 사례분석

- 삶의 의미
  - Wealth vs. equality, opportunity, education, family
  - 직업선택의 기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 역사적 문화적 배경: strong egalitarianism
-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
- 상대적으로 적은 부/소득 격차 (부의 중요성이 낮은 이유)
- 생존을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 사회적 신뢰 형성

## 핀란드 사례분석 계속

### ➤ Eudaimonic한 교육시스템

- 교육의 목적은 “to become a more creative person”
- 수단의 측면(교육을 통해 원하는 것을 달성) < 목적의 측면 (배움의 즐거움)
- 평가에서 비교의 대상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
  - Achievement goal (남과 비교, hedonic) vs. mastery goal (자기 자신과 비교, eudaimonic)
  - 학생들 간의 경쟁이 덜하고 더 행복함
- 인기 직종을 보면 eudaimonic한 성격이 드러남
  - 의사, 간호사, 선생님, 소방관 (caring others)
  - 요리사, 헤어 디자이너 (being creative)
- Find your own way to become happy 강조

### ➤ 기회가 균등한 사회

- Strong public education and health system
- 높은 계층 이동성(부모/자식 74%가 다른 소득 계층)

## 한국은...

### ➤ 물질주의 성향이 높음

- 세계가치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물질주의 성향은 45.2%로 독일 20.0%, 미국 23.8%, 일본 24.1%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 (WVS 2010-2014; “고동현 등. 2014.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에서 재인용)

### ➤ 비교성향 (김희삼. 2014. 비교성향의 명암과 시사점. KDI)

- Hedonic pleasure 추구하는 토양

### ➤ Eudaimonic한 성격도 hedonic하게 변질

- 사교육은 부모의 행복도를 높이는 직접 효과를 갖지만, 집단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행복도를 낮추는 간접 효과를 가져온다 (Shun Wang et. al. 2015.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KDI)

### ➤ 불평등의 심화

### ➤ 성장의 정체.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행복하려면?

## 결론

- 지난 반세기 동안 정책담론의 초점은 부와 소득
- 그러나 Easterlin 패러독스는 소득의 질적 측면 부각
- 정책담론에서 행복 중심의 패러다임 필요
-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 진정 행복한 삶의 방식, 사회적경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종수 센터장  
전지훈 연구원

## CONTENTS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I

도입(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II

행복 추구의 이론적 논의

III

공동체를 통한 행복 사례

IV

함의와 시사점

V

결론

# I. 도입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 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개인차원, 조직차원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또한 행복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이론이 존재함
- 그런데 우리는 현재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긴 힘든 형편임 이는 국가통계를 살펴봐도 그러함

-**세계1위 불명예 기록**(자살율, 성형인구, 최장근로시간, 저출산 및 해외입양 지속년수, 고령화속도 등)

-**열악한 근로조건**(비정규직 근로자 600만명, 월100만원이하 급여-전체근로자 32%, 빈곤층 432만명 급증, 비정규직 근로자 600만명)

-**악화된 삶의 질**(80세 이상 10만명당 214명 자살, 사교육비 연간 20조, 가계부채 잔액 915조, 주택담보대출 잔액 316조, 80세 이상 10만명당 214명 자살, 빈곤층 432만명 급증 - 1990년대 218만명, OECD국가중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3년 연속 꼴찌)

- 박상우(2012) 충남 사회적경제 거래활성화 포럼 토론문 중 인용-

- 행복의 조건 중 하나로 연구진은 **공동체를 주목하였음.**
-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통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작동하였는지, 어떠한 조건을 마련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함.



## 2. 행복추구의 이론적 논의

### 행복 추구의 이론적 논의 - 경제적 논의

#### Easterlin's Paradox

일정 수준이상 소득을 형성하게 되면,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만큼 행복도는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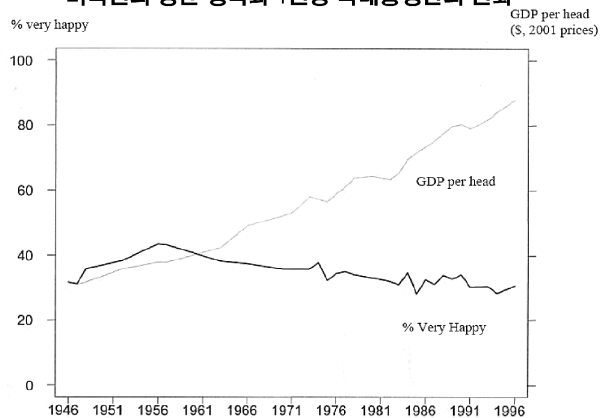
Hedonic Treadmill Effect

적응이론

Positional Treadmill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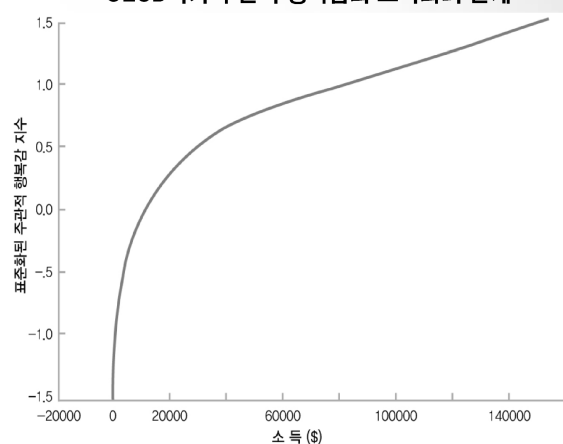
비교이론

미국인의 평균 행복과 1인당 국내총생산의 변화



Diener et al(2010)

OECD국가 주관적 행복감과 소득과의 관계



김윤태(2009) Page 6

## 행복 추구의 이론적 논의- 사회적 관계

Maslow(1970), Alderfer(1972)의 심리적 욕구이론



Page 7

## 행복 추구의 이론적 논의-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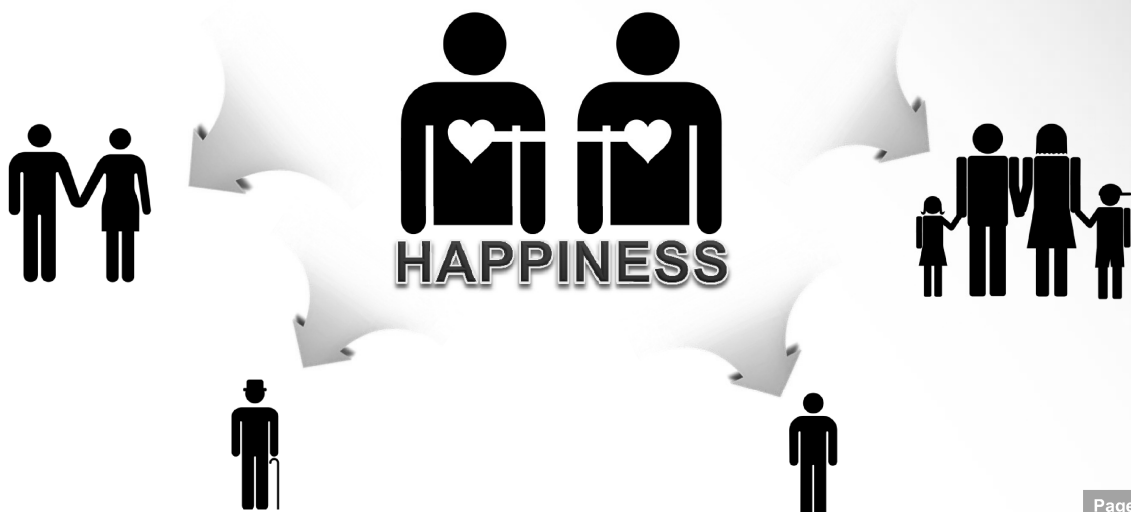
인간의 행복감은 '사람중독'이며 사회적 경험이 중요하다.

서은국(2014), Lieberman(2013)

행복에 개인 차이가 미치는 영향력은 15%이내,

오히려 행복은 타인과 집단에 관계된 성질로 상호작용에 따라 창출되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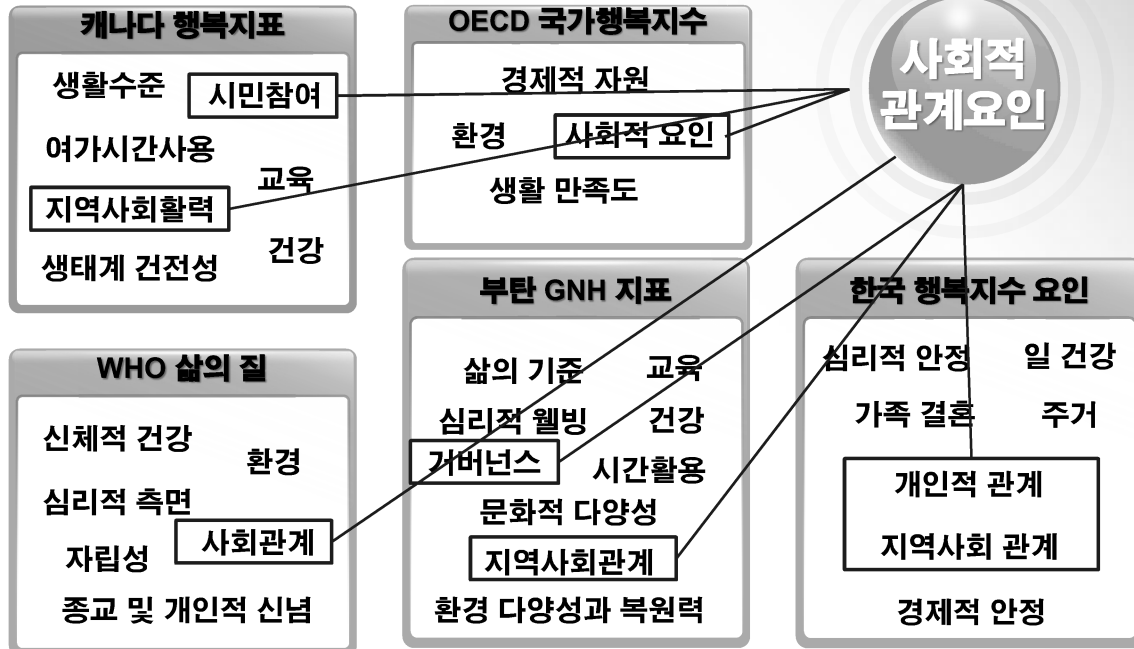
Diener(1984)



Page 8

## 행복 추구의 이론적 논의 - 행복지표 논의

### 다양한 행복지표의 논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 행복 추구의 이론적 논의 -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추구는 행복의 주요한 근원

## 공동체 활동을 통하면 행복한가? (가설 및 분석틀)

가설: 공동체 활동이 많아질 수록 관계 맺음이 높아지고 이는 행복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 연구 방법

선정된 표적집단의 심층인터뷰, 관련 사례분석

### 분석 대상

구미골사람들, 호두와트, 동네마실방 들,  
도란도란, 공간사이

Page 11

## 행복의 조건: 공동체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례

### ➤ 갈거리협동조합: 개인간의 협력-공제조합의 가능성

- 노숙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용소액대출 통한 자립의 모색
- 상담과 자활활동을 통한 신용의 회복을 기반으로 신용대출실시(200만원 한도)
- 회수금액이나 시기 등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회수율은 95%정도로 매우 양호함.
- 사회적 관계와 신용을 통한 협력으로 경제적 사회 안전망의 실제 구축 사례

### ➤ 서천 월산리영농조합법인: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를 만들기

- 농촌 공동화에 대한 고민의 해결에 대한 올바른 정책실현의 불가능
-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식의 변화를 느끼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의 가능성 감지함.
- 마을사업의 재정문제도 시민들 스스로 모여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

Page 12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2013 충남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공부하려고 하니 OTL... 사회적경제는 너무 어렵다. 보다 쉽게 사회적경제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말다니 충남에서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면 사회적경제 공부하는 데 부담이 적고 재미있고 신재미다.

어떻게 노력하는 사회적경제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2013 충남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학습동아리 운영지원금을 통해 평소 꿈이었던 사회적경제의 유망한 경사들을 모시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의 유쾌한 공부가 시작된다.

1. 사업명  
2013 충남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학습동아리 운영지원사업

2. 신청대상

- 충남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운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5인 이상 모임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주제적인 5인 이상의 모임

3. 지원규모 및 내용

- 모임당 지원금 100~200만원 지원(신청서에 따른 지원비 조정)
- 도청구입비, 경시대 등 학습모임에 필요한 비용인 지원
- 10월 지원 예정

4. 모집 및 지원기간

- 2013년 9월~12월

5.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pod0246@cdl.re.kr](mailto:pod0246@cdl.re.kr)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 매입처: 충남대자료실 / 학습동아리 운영계서

6. 관련문의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041-840-1213)
- (사) 충남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유지원(041-415-2012)

7. 주최 / 주관

주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주관: (사)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시민 강좌

## 내 삶 속의 사회적경제

일 시  
2014년 10월 28일 ~ 11월 25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장 소  
공간사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47)

대상  
협동조합 조합원 및 지역시민

문의  
010.2237.2740 (협동조합 우리동네 창동순)

10.28 10시~12시	사회를 복원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하승우(명동학점은행 대표)
11.4 10시~12시	우리가 먹는 치킨, 우리가 먹는 사회 정은경(대한민국 시민권 지지)
11.11 10시~12시	학교협동조합으로 학교를 바꾸다 주수원(아이미(보통) 운영자)
11.18 10시~12시	차별없는 꿈, 잉글랜드교육협동조합 윤모진(영동초등학교 교장)
11.25 10시~12시	다른 세상 만드는 삶의 기술, 적정기술 안병달(적정기술협동조합)
12월~12시	내 삶의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일까? 문기호(소셜디자인)

주최: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한살림천안아산, 천안아이디어센터, 천안북면도민회협동조합, 천안아산한가레두레협동조합, 협동조합우리동네

Page 13

## 사례- 구미골 마을 사람들(학습동아리 지원)

- 막연한 귀촌에서 동아리를 통한 학습과 강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음.
- 모임을 통해 구성원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할 때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함.
- 가끔 차 마시고 수다 떠는 일들이 소박하지만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생김.
-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복의 첫걸음이라 확신하게 됨.



Page 14

## 사례- 청년들의 지역활동

충남 사회적 경제  
청년 포럼

**보 드 목 ,**

2014년 7월 3일 목요일 6시 / 공간 '사이'

인원: 40명 (가) 예정

충남 사회적 경제 청년들의 대표로 모임 '보드목' 첫 모임에 참석을 초대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우리들  
매체의 발굴을 위한 모임으로 초대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실제 나의 경험과 주변은 그렇지 못한 현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삶의 가치와 연결에 있어 나아가고 있는지  
도루치 할 수 있는.

그날 그날 이야기들을 나누며  
포럼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이야기 할 것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Come on You

**장소**

청년 대표 모임 공간 '사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북로 3길 37 동문영인 4층)

**준비물**

일에서 사용되지 않는, 누군가에 나눠줄 수 있는 물건 하나  
그날 그날 이야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포스트잇과 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거나 함께 하고픈 친구 한 명

**첫 모임 순서**

18:00~18:10	환영, 인사
18:10~18:30	준비물 '준비물' / 선물 나눔
18:30~19:30	환의 노예니 경제 이야기
19:30~20:30	강조점을 위한 나눔 토론
20:30~	원동기


주최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주관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별이별들

충남청년포럼

하교싶은 일 하면서  
밥벌이 하기

당교없는 사람: 를루칼라예술협동조합

날짜: 8월 6일 6시 장소: 공간사이



단대호수에서 열리는  
가을의 프리마켓

**섬잔치**

귀족각가수공연, 판타지, 주교로, 판타지, 신개수, 공연, 축제, 축제

**10.24.Fri**  
16:00~21:00

**단대호수 산책로**

**벨로모집**

신청방법:  
문자신청! 010.9421.8528로  
'셀라신청합니다!'

신청기간:  
10월 23일 저녁까지

문의:  
010.9184.7059  
카톡이디디 'sosanso'

주최: 주최: 호두와트마법학교

Page 15

## 사례- 호두와트 마법학교(청년모임)

동네 오빠를 선생님이로 모셔 얼렁뚱땅 시작했던 기타교실 '기타등등', 주민센터, 시민단체, 지역의 예술작가와 음악인, 사회적기업, 급식업체 탐차까지! 지역자원이 총출동된다는 폴리마켓 '섬잔치', 다같이 모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워크숍 '섬섬옥수', 매월 마지막 금요일 밤 라면 한봉지와 맥주를 들고 오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호두와트영화제, 만두빚기, 김장잔치... 이 엄청난 일들(?)을 재미로 벌여놓고 수습하느라 온 동네를 뛰어다녔었다. 빌리고 부탁하고 모셔오고.

하나하나 일들을 해치울 때 마다 무지막지하게 '관계'의 힘을 느꼈었다. 난감한 사례발표나 인터뷰 요청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사회적이라고 칭하는 것도 아마 이 '관계'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나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고마운 관계는 우리가 지역과,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보다도 우리들끼리의 관계이다. 고만고만한 나이에 고만고만한 벌이에, 연애도 진로도 늘 고민인 친구들이 모여 불안과 긴장의 연속인 2말3초를 버텨내고 있다.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늘고, 이직을 하거나 독립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불안한 생활과 직장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고백하다 시작한 소액대출 '호두금고'는 벌써 세 명이 대출을 했고 한 명이 원금 상환까지 마쳤다.

고작 십몇만원의 푼돈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그 고민들을 관계를 통해 해결할 줄 아는 호두와트가 늘 고맙고 든든하다.

- 호두와트 마법학교 참여자 Y -

Page 16

## 사례- 흥동마을 동네마실방 뜰

동네마실방 뜰



### 마을카페 창업지원 사례 (2011.3.11)

- 개인이 운영하던 술집의 폐업 소식... 그간의 음주사고들...
- 술집을 넘어 동네마실방으로서의 소중함 인식... 지역공감대 형성
- 100여명의 공동출자(1,800만원)와 주민 재능을 통한 리모델링
- 영리와 영업공간이 아닌, 주인장 없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

- ⇒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 이윤 목적이 아닌 적정이익 창출
- ⇒ 신규 일자리 창출 : 대표일꾼 2명(주방장/서빙)
- ⇒ 출자금(이익)의 재환원 : 마을기금 적립

Page 17

## 사례- 흥동마을 동네마실방 뜰

당시 흥동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주민이 함께했던 사업이 드물어서 기대도 컸고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 다. 사실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지역의 여러 여건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면 단위 시골마을에 우선 마을카페를 드나들 젊은이들이 비교적 많았죠. 게다가 대도시보다는, 마을공동체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들이었기에 뜰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주인의식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생기면 발 벗고 나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구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어 온 원동력이었나 싶어요. 매년 뜰에서 여는 연말행사를 보더라도 빈자리가 없고 자연스럽게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역시 나 그런 영향이 큰 거 같구요.

그리고 처음엔 낯설어했던 지역의 선주민(원주민, 토박이) 분들도 4~5년이 지나다보니 요즘엔 찾아주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그렇더라도 귀농귀촌인들이 즐겨찾는 술집이라는 이미지를 벗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선주민 분들도 고령이라 같이 어울리기는 쉽지 않더라구요.

이제 동네마실 방 뜰은 흥동지역에서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과가 끝난 후에 지역주민이 편히 만날 수 있고, 지역모임의 뒤풀이 장소나 외부손님과의 교류장소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곳이 되었어요. 더구나 500cc 한 잔에 500원의 마을기금도 적립하고(현재 약 7백만원), 어려운 지역단체에 매월 기부도 하고, 지역화폐도 유통하는 등, 마을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 마을활력소 사무국장 L -

Page 18

## 사례- 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



- 천안 도란도란 협동조합은 농촌노인의 높은 자살률 문제에 초점, 독거노인 공동거주사업 추진하며 농촌의 빈 공간을 활용해 노인 친화형으로 리모델링 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쉼어하우스 조성함.
- 정덕수 상임이사는 "2013년 사회적경제 청년캠프를 가게 됐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돈보다는 사람과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며 "천안지역의 사회적약자와 더불어 사는 가치가 인상 깊어 나도 한번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농촌노인의 사회문제에 접근하게 된 정 이사는 농촌노인의 자살자가 매우 많다는 통계를 접한 후 독거노인 공동거주사업을 사업아이템으로 잡게 됐다고. 그는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 현재는 천안북면 협동조합 준비모임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확장 및 실현가능성을 향상시킨 단계. 정 이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농촌 사회문제 해결로 공생, 공동, 공감이라는 도란도란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Page 19

## 사례 인터뷰- 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돈' 만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보았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천안북면이라는 농촌지역에서 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을 창업하고, 활동하게 되면서 진정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돈을 남들보다 적게 벌더라도 이것이 있기에 내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앞으로 더욱 필요한 무형의 재산임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으로 연결된 인간관계와 공동체문화였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서로간의 '신뢰'라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아예 벌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제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다만 요즘 시대에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인간관계, 자신의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관계 단절 시대에서 공동체 활동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결핍을 채워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도란도란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J -

Page 20



## 사례- 우리동네협동조합(공간 사이)



- '사이'는 사회적 기업 (주)즐거운밥상과 협동조합 '우리동네'가 함께 만든 네트워크 공간
- '사이'라는 말은 바다와 물 사이 갯벌의 소중함에 대한 고민,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의 끈, 공간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주목
- 나만의 공간, 나만의 소유를 최대한 배제하고 공유한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
- 활동가들이 자신의 뜻대로 주민들을 대상화 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우리 공간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사업들을 만들거나 형성하면 좋겠다는 생각

Page 21

## 사례인터뷰- 우리동네협동조합(공간 사이)

지역 협동조합과의 관계형성. 그 시작은 충남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교육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였다. 당사자 조직이 서로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그 요구에 의해 공통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남은 이후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주는 힘이 되었다.

상호거래와 공동사업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견에 따라 천천히 준비하면서 2016년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작지만 요구가 있는 조직끼리 조금씩 상호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대단한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거나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작은 실험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와 당면하면서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인 듯 하다.

사람을 만나는 과정, 함께 공부하는 과정,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튼튼한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고, 준비모임은 유기체처럼 계속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아닐까? 느리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업을 고민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이후에 나와 후배들의 안전망을 일구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비록 내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새로운 실험과 일상의 변화는 엄청난 행복감을 준다. 바빠도 행복하고, 만나면 즐거운 지금의 삶은 자본주의가 주입하는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영위하는 삶이 아닐까?

- 협동조합 우리동네 사무국장 J -

Page 22

## 사례의 종합과 분석

분석의 틀

공동체 활동

관계 맺음

행복증대

호두와트

기타교실 기타등등, 폴리마켓 섬잔치  
섬옥수수, 영화제 등 다양한 활동

행사 실시마다 관계의 힘으로 극복  
청년들간의 연대감과 협력으로 성장

호두금고 등 소액대출 사업  
관계망속에서 느끼는 연대의 행복

공간사이

사람의 인연과 공유 중심의 공동체,  
공동교육사업활동으로 작고 다양한  
지역사회 실험활동 추구

우리공간에 대한 주민주체 형성 활동,  
조직간의 상호거래활동  
성과 없더라도 지역의 작은 실험을 통  
한 상호이해

상호관계활동 통해 튼튼한 연대 형성  
교류, 협업, 민주소통과정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안전망을 일구는 행복과정

도란도란

공동체중심 노인의 공동주거 사업  
노인 친화형 리모델링 셰어하우스활동

농촌에서 노인들의 공생, 공동, 공감  
의 '도란도란'가치 실현

사회적자본으로 연결된 공동체문화,  
신뢰라는 인간관계 통한 행복추구

구미골마을

동아리 통한 학습, 공동 강의

마을기업활동의 관계,  
책모임과 강사교육의 상부상조활동

공동의 목적실현의 연대감과 희망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행복의 기대

동네마실방

동네 술집폐업, 음주사고 극복필요  
지역애정과 주인의식 고취필요,  
민주적 의사결정과 기금적립의 구조

영리가 아닌 지역주민교류공간 탄생  
다양한 세대와 주민의 어울림

주민들에 꼭 필요한 장소 인식  
지역과 주민의 애정 향상

Pag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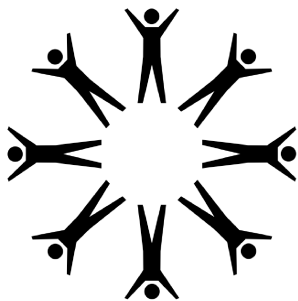
## 사례의 종합과 분석

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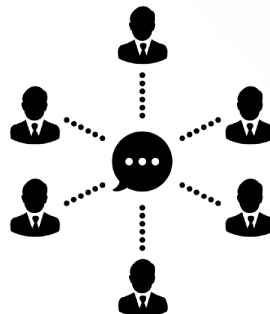
관계 맺음

행복증대

인간과 지역의 필요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



구체적 활동을 통한 다양한  
관계형성, 상호거래, 어울림



튼튼한 연대감, 상호공감,  
참여자의 안전망구성, 지역  
애착심 형성



Page 24

## 연구의 참고문헌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윤태. (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학술심포지움 자료집.

박상우(2012) 충남 사회적경제 거래활성화 포럼 토론문.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서울: 21세기 북스.

송두범 외 (2013).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5개년 계획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Dei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einer, E., Gohm, C., Suh, E., Oishi, S. (2000). Similarity of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4): 419-436.

Lieberman, D. (2013). Social: Why our brains are wired to connect. New York: Crown.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per&Row.

Page 25

# 감사합니다.



## 【토론문】

### 한국 자본주의의 ‘자살 친화적’ 성장: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

홍기빈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좋은 삶 eu zen’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개의 차원을 강조하였다. 하나는 공동선 agathon koinon 의 차원이요 다른 하나는 ‘피어나는 삶 eudaimonia’의 차원이다. 이번의 발표자 분들이 각각 강조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첫째, 행복이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 함께 사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며 또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실현하는 집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 공동선은 비단 전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의 차원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의 규범 norm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행복이란 고립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토론과 집단의 협업 및 협동에서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라 polis 의 존재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다.

둘째, 행복은 물질적 부의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태어난 정신적 육체적 욕구와 능력의 충분한 활성화 즉 발전 development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관념 즉 물질적 부에 대한 욕망과 대비시킨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으며, 따라서 물질적 부에 대한 필요도 제한되어 있다. 사람이 자기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정확히 무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그러한 좋은 삶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며, 이를 집안 살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살림살이의 기술 oikonomia 이라는 것이다.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 chrematistike 은 오직 그 하루 기술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를 망각하고 자꾸 재물의 획득을 삶의 목표로 놓게 된다면, 피어나는 삶은 뒷전이 되어 버리고 삶은 재물 획득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 어째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일까? 좋은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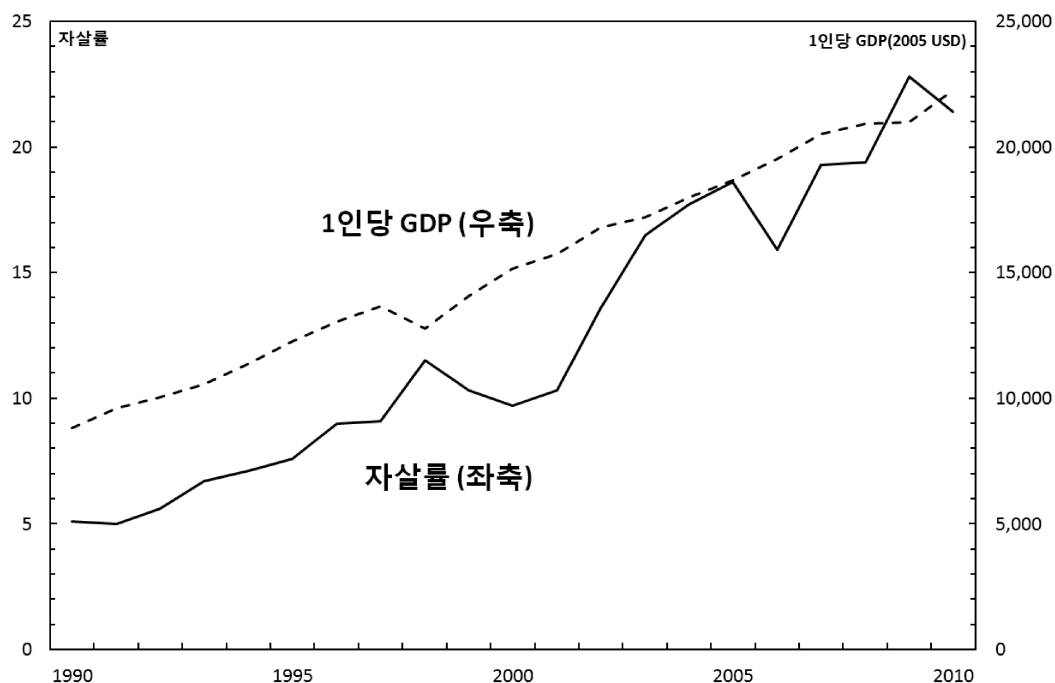
이제 한국 자본주의의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켜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삶의 조건들이 파괴되고 그가 말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왔다고 할 것이다. 먼저 분단, 전쟁, 독재,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온 과정이 있었다. 이는 거시적인 정치 체제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단위에서 인간 간의 협력과 협동 그리고 그 속에 녹아 들어 있는 인간의 좋은 삶에 대한 공동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정신적인 가치와 그것이 실현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 설정과 만족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피어나는 삶’이라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홀로 유유자적하는 선인 仙人 이 아니라면, 인간의 자기 발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를 인정하고 공유해주는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이 원하는 좋은 삶이란 공동선도 아니요 피어나는 삶도 아닌, 그야말로 물질적 부의 축적이라는 것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경고한 상태이지만,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감정은 파괴되어 고립 파편화된 개인의 상태에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와 재능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재물을 바라보

는 경제관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완전히 수단화하여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이른바 물질주의적인 행복관과 인생관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고도 성장의 중요한 사회적 추진력이 되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스터린 패러독스의 문제로서, 물질적 부는 ‘빈곤의 비참’이라는 불행을 면하는 지점까지는 분명한 행복감을 가져오지만, 그 자체로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의미와 방향을 사회의 복원을 통하여 얻을 때 (즉 공공선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쓸모가 밝혀지면서 행복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공공선이 사실상 소멸에 가까워진 상태이므로, 일정한 경제 성장을 이룬 뒤에는 이것이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 힘들다. 둘째는 부의 불평등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물질적 부에서 소외되기까지 할 경우 살아갈 힘을 찾아 내기가 힘들게 된다. 사회적 관계는 파괴되었고, 자신의 인간 발전이란 부를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 상태에서, 물질적 부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 삶의 의미를 찾아낼 원천이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서의 고도 성장이란 상위의 소수를 제외한다면 특히 하위에 있는 이들에게는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원천이 된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사회의 파괴와 이로 인한 공동선의 실종은 심화될 것이며, 사람들이 부의 생산과 축적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수단으로 희생해야 하는 강도도 늘어날 것이지만, 그 성과물은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대다수가 소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떠안는 이들은 삶을 포기할 지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삶을 포기하는 이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의 차트를 보자.



두 시계열의 피어슨 상관 계수는 무려 0.96이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GDP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후생’을 측량하는 지표의 하나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비교해보아도 이러한 두 시계열의 거의 완전 일치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는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곧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이 곧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방향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지난 반 세기 동안 걸어왔던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임을 암시한다. 즉 더 이상 물질적 부의 총량 증가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 때문에 교육과 여가 등 인생의 자기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회들을 포기하고 희생시키도록 만드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연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경제적 관계’가 아닌 공동선의 공동체로 회복해야 할 것이다.





## Session 2

# 우리사회 행복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 발제

- 행복 연구 동향과 행복 정책의 모색 >>> 고승희(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 무엇이 우리사회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_ 행복조사를 중심으로  
>>>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토론

- 변미리(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 이영문(공주국립병원 원장)





# 행복에 대한 관심과 정책연계 방향

충남연구원 고 승 희

## 1. 서론

최근에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조작적 정의나 행복 지수의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인생을 보다 잘 즐기기 위한 고민으로써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에서도 행복에 대한 관심을 두고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행복에 대한 측정과 이를 통한 순위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 측정 노력은 결국 어떻게 활용되고 정책과 연계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행복과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행복에 대한 접근과 측정 및 활용사례를 비롯하여 연구경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기관 차원에서 활용되고 정책과 연계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여러 한계가 있고 기관별 차이도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논의 과제이나 이 또한 행복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발전시키고 정책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되며 향후 지속적인 측정결과와 추적과 변화를 점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행복측정에 대한 접근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공유하면서도 이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각각 행복을 보는 시각과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 ‘행복’의 개념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sup>1)</sup>. 그 하나는 자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접근법은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 웰

1) 통계개발원,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06, pp 14-18 재구성

빙을 강조한다(Noll, 2004).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측정값이다. 객관적 지표의 옹호자들은 사회지표는 사회정책을 안내해야 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태와 그 문제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보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하고 이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주관적 지표는 정책과정에 왜곡을 가져오고 과학적 관리를 방해하는 비합리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경우 삶의 질과 행복은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기 자신이 평가의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주관적 웰빙의 지표는 만족감과 행복감의 측정이며 이러한 시각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관적 지표를 주장한다. 첫째, 사회정책은 물질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관적 목표는 주관적 지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물질적 목표에서도 항상 객관적으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관적 지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측정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주관적 만족지표가 훨씬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넷째, 객관적 지표로 정책결정자는 대중의 선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대중의 결집과 욕구를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객관적 지표로 어렵다는 것이다. 주관적 지표의 경우 삶의 질과 행복은 개인들에게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각 개인들에 의해 가장 잘 평가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에 있어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 등 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한 논쟁에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객관적인 조건과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의 시각을 함께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인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 측정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Stiglitz et al., 2009). 첫 번째 접근은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심리학 연구에 기반을 가진 주관적 웰빙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행복’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목적이라고 가정한다. 개인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은 개인들의 선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모을 수 있으며,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삶의 질 측정에서의 능력(capabilities) 개념에 근거한다. 이 접근법은 인간의 삶을 다양한 ‘행위와 존재(doing and being)’, 즉 기능의 결합 및 이러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기능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나 행동으로 건강, 지식, 직업과 같은 개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가진다. 세 번째 접근방식은 경제적 접근방식으로 경제복지와 분배의 측면에 근거한 개념이다. 이 접근의 기본개념은 삶의 질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개인들의 선

호와 관련되어, 삶의 질의 다양한 비화폐적 측면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비화폐적 차원에 대한 특정한 선호도와 함께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과, 개인들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 등이 요구된다. 이 접근방식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간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만을 불균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통계개발원, 2011).

<표 1>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최종목적	객관적 삶의 수준 향상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 제고
평가주체	전문가	일반국민
장점	정책활용 용이 시계열 비교 용이	국민의 다양한 견해 반영 국민의 실제 체감 측정
단점	심리적 측면 간과 측정의 신뢰성	열망(기대)의 수준에 영향

자료 : 이희길, 충남발전연구원 행복워크숍 발표자료 2012. 2. 25

### 3. 행복 및 유사 측정지표와 사례

#### 1) 유사 측정지표

기존의 행복측정 관련 지표들은 UNDP 인간개발지수, 행복한 지구 지수(HPI, The Happy Planet Index), 행복공식(영국BBC 방송),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NH), 행복도측정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 혼합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표들은 행복공식, 행복도측정조사, 국민총행복지수 등이며 객관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표는 UNDP 인간개발지수 등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지구 지수 등이다. 기존의 행복관련 지표는 상당수 국가별 수준이나 순위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며 특히 지역별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1960년대 들어 개발되기 시작된 사회지표는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가치체계 및 개발개념의 변화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수준에서의 사회복지나 삶의 질 같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사회적 영역의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의 경향에 관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OECD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국가적 평균치를 나타내어야 하며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 세부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에 포함

되는 사항은 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보건, 질병, 자연환경, 소득, 문화예술, 참여, 공공질서 등에 관한 정보이다.

1991년-1992에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관 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삶의 질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회의에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삶의 질이란 ‘자신들의 문화 및 가치체계의 관점과 그들의 목표, 기대, 표준 및 관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위(위치)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광의적인 접근이며 개인의 육체적 건강, 정신상태, 독립정도, 사회적 관계, 신뢰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삶의 질이 문화적, 사회적 및 환경적 부문에 내재되어 있는 주관적 평가를 뜻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삶의 질 또는 생활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icators)는 경제, 사회, 환경지표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회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삶의 질 지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건, 소득, 고용, 생산성, 교육, 교양, 자유, 개인주의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환경 질 지표(Quality of Environment Indicators)는 환경상태의 측정을 위한 일련의 지표라 할 수 있다. 환경 질 지표는 1970년대 초 도시환경문제의 악화에 따라 환경지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78년 OECD의 도시환경지표개발위원회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사회지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환경지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지표 개발의 주요대상은 공기 및 수질오염의 측정, 위험물질의 사용한다 측정, 폐기물처리, 토지이용과 토양보전, 자원고갈, 야생동물의 관리 등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로 발달하여온 사회의 성장이나 발달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흔히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복지를 만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본전제는 현상에 대한 기술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지표체계를 논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범위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며 환경, 자원, 생태,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제도, 정치,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보는데 있어 단순히 환경의 질 변화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수용능력 변화에 대한 관찰을 보다 중시한다.

## 2) 유사지수 적용사례

### (1) 국가별 운영사례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는 일본 국민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 국민의 의식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에서 1992년부터 제안하여 작성한 지표이다. PLI는 개인 생활의 풍부함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기본분야에 더하여 개인의 여가와 자유시간 활용 측면을 파악하여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

관계의 8개 활동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에 대해서 안전, 공정, 자유, 쾌적 등 4개의 평가축을 설정해 각 활동영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영역별 중요도에 따라서 지표구성을 하였다.

캐나다 웰빙 지수(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인간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 척도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CIW는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진보의 의미’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범국가적 지표개발 프로젝트로서, 1999년부터 캐나다 지도자, 전문가, 대중 등 각계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CIW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일한 지수와 각 하부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한 지수(Headline Indicators)를 구축하고자 한다. CIW는 GDP, GNP와 같은 기존 지표들이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선 캐나다 국민들의 웰빙을 측정하고자 한다. CIW는 캐나다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측정하고(measuring stick), 문제점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여(spotlight), 이를 예방하거나 실제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공공정책수단(public policy tool)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조사하고 있는 국민총행복지수는 경제적인 고도성장이 아닌 전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부탄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행복지수라 할 수 있다.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은 부탄의 국정 운영철학으로 물질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탄국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하여, 각종 정부 정책이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GNH란, 부탄의 개발 철학이며,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일률의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NH는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지표로서 수치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1999년에 부탄연구센터가 설립되어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홍콩의 삶의 질 지수는 홍콩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삶의 질 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문화, 경제, 환경 영역의 21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들은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 (2) 국제기관 운영사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DI)는 170여개 UN회원국을 대상으로 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은 평균수명, 교육정도, 교육기회, 1인당 GDP 등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다.

OECD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사회발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 등 각국의 웰빙 수준을 개념적 단계가 아닌 실제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항목별 및 전체 순위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OECD의 How's Life에서는 크게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세 축으로 하는 틀을 따르고 있다.

천연자원고갈과 이상기후현상, 그리고 불안정한 시장경제 상황은 전세계인들에게 '삶'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환은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지표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이다. Calvert-Henderson QoL Indicators는 미국의 자산관리회사인 Calvert와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Hazel Henderson이 각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12명의 학자들과 함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6년 동안 개발한 새로운 지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내리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삶의 질 척도(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라는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WHOQOL은 100개의 세부문항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원적인 측정도구이나 지나치게 문항이 상세하고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인해 단축형인 WHOQOL-BREF도 개발되어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서베이 결과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들은 기준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높다. 이 지수는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차원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각 영역별로 한 개씩이어서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가 너무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

### 3) 행복 및 유사지표의 검토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 및 관련 연구를 통해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표산출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산출을 위해 사용된 개별지표들이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지표에 부여된 가중치는 적절한지 등의 문제이다. 국제기구와 외국의 행복지수들은 중점을 두는 영역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활용한 지표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대표성 있는 지표를 활용하였는가에 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합리적 선정이 중요한 과정이다.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는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복지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과 평가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변화양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개별 연구



들로 일회성 연구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범위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본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표의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이현송(1997)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측정내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연구의 대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질문항목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 간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통계자료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의 구성에 있어 조사기관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측정기관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사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나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지표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별 연구는 행복지수 보다는 삶의 질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비교보다는 그 사회의 시계열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그 사회의 특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주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주관적 지표를 추가로 구성하고 있다. 영역의 구성에서 있어서도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 사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부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OECD에서도 국가별 행복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지표는 아니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수의 개발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은 참고된다.

개별 연구들의 내용은 주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되고 있으며 측정내용 또한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 자아성취감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대한 항목으로 국가 또는 지역의 행복지수에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행복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될 수 있는가에는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지표 및 측정을 위한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복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표들의 영역구분 방식은 대부분 기존 연구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의 결정요소는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사회관계 측면, 생활환경여건, 자아성취와 만족감, 교육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측정지표의 구성에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결과 측정지표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바, 연구 및 활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사용방법도 함께 고

려될 수 있어야 한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고 있고 비교가능성과 정책활용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두 측면 모두 중요하다. 객관적 지표의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주관적 만족도나 감정은 측정될 수 없기에 한계가 될 수 있지만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 등 일부 객관적 지표는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로 간과할 수 없다.

### 3. 행복측정을 위한 측정틀

#### 1) 행복측정을 위한 측정틀의 개요

의미 있는 측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측정이 이루어질 개념적 영역을 서술하는 것이다. 행복을 측정하는 경우에 이는 실로 큰 과제이다.

행복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인생의 모든 측면들에서 건강하고 또한 충족된 삶의 상태로써 간주될 수 있다. 행복의 측정은 따라서 삶 전체를 점검하는 과제와 함께 인간 삶의 질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닌 모든 사건들과 사회적 환경들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여기에는 삶의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및 정신적 측면들이 포함된다. 좀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 개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물질적 및 자연적 환경들은 상호의존하면서 행복 함수를 구성하는 부분적 변수들을 형성한다.

행복은 연구의 목적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기저 철학(underlining philosophy)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즉, 행복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good society)이고, 어떤 삶이 좋은 삶(good life)인가에 대한 고전적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용어로 활용되는 ‘복지’, ‘웰빙’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적인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를 다루는 ‘삶의 질’ 개념과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를 다루는 ‘사회의 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은 “시민들이 그들의 삶의 질과 개인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사회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통합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의 삶의 상황(life situation)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행복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행복을 광의적으로 개념화하여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그 환경을 구성하는 ‘사회의 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행복 측정이란, 주민들의 인생이 여러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어떤 조건에 있고, 그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 즉 생활 영역(life domains)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OECD는 관심영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OECD, 1976), 관심영역을 “인간 행복에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는, 확인 가능하고 정의 가능한 관심들”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심영역의 설정은 행복의 측정에서 삶의 어떤 측면이 행복에 중요성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것들인지에 관해 가치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개인의 행복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느낌을 토대로 스스로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측정되거나, 그들의 행복 상태를 반영하는 몇몇 관찰 가능한 속성들의 상호비교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행복은 만족스러운 삶이 의미하는 바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적 행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이나 또는 인생의 여러 측면들에서, 즉 직업, 건강 등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기준 삼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측정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주관적 측정들을 다른 통계들과 연결시키고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추적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삶의 조건들이 향상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망을 제공한다.

다른 접근방법은 과학적 전통에 보다 강하게 토대를 두고 있는데, 행복의 상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속성들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 건강의 여러 측면들은 특별한 종류의 건강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림으로써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행복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부분적이긴 하지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주관적 측정치보다 객관적 측정치들에 더욱 큰 무게를 부여해왔다. 이러한 선택은 주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즉, 객관적 정보들이 행정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에 가장 큰 유용성을 지니고 있고, 또 보다 쉬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주관적 측정들도 객관적 통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주관적 측정치들을 개별 관심영역 속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 2) 관심영역의 설정

무엇이 자신들의 행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건강한 삶과 소득을 머리에 떠올린다.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다 보람 있는 직장과 함께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여가활동을 덧붙인다. 역사적으로, 관심영역 설정은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확인하는 직관적 접근방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70년대 전반에 OECD는 웰빙은 목표영역 또는 관심영역을 규정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OECD 보고서는 목표영역 또는 관심영역을 ‘인간 웰빙에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는 확인가능하고 정의 가능한 원망(願望)과 관심들’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ECD는 ‘웰빙에 대해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중요성을... 토대로 하여’ 이들 영역들을 선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체계의 구성이 이루어졌던

당시에 선택된 삶의 여러 측면들은 인간 생존의 여러 차원들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행복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관심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까지 행복이나 웰빙, 혹은 삶의 질 측정을 시도한 다양한 국내외의 사례에 대한 논의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대부분 GDP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지표만으로 그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관심 현상, 웰빙이나 행복을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발전을 시대의 과제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이다. 즉, 경제발전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다. 화폐로 전환가능한 측정만으로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화폐적인 영역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측정 관심의 변화는 ‘GDP를 넘어(beyond GDP)’ 혹은 ‘GDP와 이를 넘어서(GDP and beyond)’와 같은 슬로건으로 표현된다. 이는 기존의 국민 복지를 물질적 생활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과 함께 사회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 영역을 포함한다. 여기서 ‘삶의 질’은 물질적 생활조건 즉, 소득소비, 노동, 주거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교육, 건강, 여가문화, 안전 및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함께 이에 대한 주민의 인지 및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객관적 지표와 주관지표를 포함하고 또한 기존의 경제지표와 함께 사회지표를 포함한다. 특히, 최근 행복측정에서 주목할만한 관심영역으로 등장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도 포함한다. 이 영역은 다양한 관심영역에서 영역별 주관적 만족도와 같은 주관지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영역과 독립된(free) 독립영역으로 ‘주관적 웰빙’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 행복 측정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기존 ‘삶의 질’이 ‘삶의 질’과 관련된 현재 접근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삶의 질을 개인 특성과 생활환경 측면에서만 개념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Noll, 2004; Berger-Schmitt & Noll, 2000). 다시 말해 전체사회의 특성이나 질에 대한 차원, 즉 형평, 평등, 자유, 유대와 같은 개인들의 복지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1980년 후반기부터 1990년대에 걸쳐 유럽을 중심으로 명시적으로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 즉 전체 사회들 내에서 복지의 분배나 사회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질’ 논의에 비해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기반이 정교하다. 이 논의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에서 출발한다. ‘사회의 질’은 “시민들이 그들의 웰빙과 개인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공동체의 사회 및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시민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회의 질은 네 가지 조건으로 구분된다. 사회의 질 개념에서 살기 좋은 사회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보장성),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통합성), 다양한 제도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고(포용성),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잘 발휘되는(역능성) 사회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Walker & van

der Maesen, 2004). 셋째, 기존의 행복 측정내용을 보면 그 영역이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 영역은 삶의 질에서도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관심 영역을 넘어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연구의 범위와 대상으로 고려하여 관심영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 4. 행복지표 조사와 정책연계를 위한 조건과 과제

##### 1) 정책적 연계를 위한 조건

주로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복은 개인의 타고난 기질에 영향을 받아 외적인 변화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가설이나 주장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행복지표와 정책의 연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게 된다. 하지만, Lucas(2007), Federick and Loewenstein(1999) 등은 외적인 환경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감이 변화함을 보여주며, 이는 측정된 행복지표에 기초하여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행복측정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사회지표운동이 확산된 이래로 꾸준히 전개되었다. 삶의 질이나 행복을 측정하는 사회지표의 활용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행복’에서의 문제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까지를 그 목표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화, 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활용된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고서(social report)나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결과를 공개하는 수준으로, 작성된 행복지표의 결과물은 정책적 활용보다는 국민인식전환 역할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쟁점들이 무엇이고, 그 문제의 수준은 어떠한가 하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줌으로써,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인프라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럼 왜 사회지표 운동 초기에 정책적 활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형성이나 평가, 우선순위 결정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980년대 목격되는 사회지표 운동의 급격한 약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1960~70년대 진행된 사회지표에 대해 이론적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기술적이며(descriptive), 정태적, 비역사적이며 또한 사회동향을 추적하는 개별적 총합 측정에 기초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Esping-Anderson, 2000). 행복이나 삶의 질을 그 핵심 개념으로 추진되었던 사회지표의 급속한 쇠퇴를 연구했던 Cobb는, 사회지표의 측정 결과가 왜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없었고, 그 결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복이나 웰빙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

는가에 대한 인과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 2) 행복지표 조사와 정책연계 방향

### (1) 인식전환 기능의 강화

행복지표를 통한 인식전환 기능이 중요하다. 주민생활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경제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다양한 측면의 생활정보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변화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금융 및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지표와 국민생활 간의 격차가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 노력은 결과적으로 사회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의 관심과 논의를 유발한다. 그리고, 행복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능력은 구체적인 정책 대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박형수·전병목, 2012). 사실, 행복이나 웰빙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경제지표를 넘어서 광범위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에서 출발하였다. 두 번째 원리로 행복이나 웰빙의 측정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보고(social reporting)를 통한 대중의 인식전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사회동향을 기술하고, 왜 일련의 지표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가를 설명하고, 이러한 지식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일련의 지표들 간의 중요한 관계를 조망하는 사회보고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서 웰빙나 행복을 측정하는 사회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행복지표의 인식전환적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결과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와 함께 보고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행물들을 살펴보면, 주요 지표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더불어 전체 지표에 대한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간행물에 제시된 각각의 통계표의 내용이나 그 내용이 갖는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작성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과물의 확산 방안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표 통계 수치를 제공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통계표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그 통계표에 나타난 수치들이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관한 설명은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행복지표 체계 내에 포함된 모든 지표에 대하여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지표 영역별로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각 지표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현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설명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행복지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지표 작성 초기부터 언론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행복지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결과를 단순히 보도자료로 통해 알리기보다는 행복지표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지역사회지표 결과 도출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그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문제이다. 행복지표는 지역 주민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values)와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실행(actions)간의 차이에 대한 대차대조표이다(Phillips, 2003). 따라서 바람직한 행복지표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동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행복지표 결과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자에게 지표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 입안 및 수행 결과의 평가 과정에 지표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목표의 설정, 이를 위한 예산 책정, 목표 달성 여부 확인 등의 과정에서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복지표 조사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자원투입이 필요한 영역을 판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변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가 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공유된 관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행복지표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행복 측정 지표의 추상화 수준과 관련이 있다. 행복 측정을 위해 선정된 지표가 추상화 수준이 매우 높고 거시적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고용률과 같은 지표는 추상화 수준이 매우 높아 개별 기관의 노력으로 단위 정책으로 쉽게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공공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지표를 선정할 경우, 행복지표와 정책들과의 연계성은 더욱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연계를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지표선정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사회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서, 행복지표가 결과에 근거한 책무성(the results-based 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지표는 정부의 정책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표선정 기준으로 정책민감성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외의 다양한 지역사회지표의 역사에서도 경험했던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상화 수준이 높고 일반적인 지표(예, 고용률)와 정부에 의해 통제가능한 구체화된 지표(지방정부 창출 일자리 수)를 동시에 활용하는 노력이 진행되기도 한다.

### (3) 행복수준과의 인과관계 규명(분석)

행복지표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Cobb가 지적한대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노력과 성과가 전제되어야만 정책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주민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행복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최선의 과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행복에 변화를 야기하는 결정요인, 즉 행복의 개선 혹은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양한 생활영역에 걸쳐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영역은 일반적으로 성격과 같은 유전적 요인 외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물질적 조건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적응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관적 웰빙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구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능한 방안에 대한 인과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행복의 관련 영역이 방대한 만큼 실로 방대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영역간의 관련성에 대한 규명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이러한 결정요인들과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적 연구성과 축적의 필요성에 비추어 현재의 행복지표 연구를 정책에 활용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이며 향후 더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행복지표에 대한 측정조차 늦은 편이며, 이에 따른 관련 연구결과 축적도 많지 않은 편이다.

유엔 행복보고서(Helliwell etc, 2012)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행복에 대한 과학은 아직 유아기 단계로 정책적 함의는 아직은 미미하며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행복학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핵심적 과학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다. 행복에 대한 증진된 이해는 세 단계를 거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첫째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측정, 둘째 개인, 지역사회, 전체 인구에서 행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설명, 셋째 이러한 이해를 행복의 증진과 불행의 감소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는 단계이다. 사실 현 수준에서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더



많은 정보와 검증이 요구된다. 분명한 사실은 현 시점에서 우선 행복을 측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행복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한 측정이 존재해야, 이것에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인과적 연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4) 행복지표의 조사 및 운영방식의 개선

행복지표의 측정은 이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질 때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행복지표의 측정결과를 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냄과 동시에 행복감의 변화를 비롯하여 지표들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만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행복지표 뿐만 아니라 현재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지표 등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조분석능력을 요할 뿐 아니라 업무량을 감안하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시적으로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설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되었거나 향후 개발되어질 지표들이 조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통계자료가 적절치 못하거나 통계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가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표의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표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현재 개발되어 조사된 행복지표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지표는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유용한 측면이 있는 반면 세부적인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행복지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측정됨과 동시에 세부 영역과 대상을 축소 또는 한정하여 세부적인 조사연구가 병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즉, 보다 세부적인 대상과 영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발이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행복연구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 또는 농어민 등 그 대상을 한정지어 보다 세부적인 전략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5. 결론

개인의 행복증진은 해당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 등 모든 위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개별 위계에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행복증진을 위한 노력은 실제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행복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가용자원이 한정적임을 감안하면, 이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주민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개발하거나 개별 정책에 대해 주민의 행복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을 심사하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기대와는 달리, 행복지표의 정책적 활용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유엔보고서의 지적대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정책적 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추가적인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복측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행복 측정은 행복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행복의 관련 요인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 연구노력에 비해 국내의 측정노력이 취약하고 결과의 축적이 미흡한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 측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 그리고 국제적 비교 측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행복측정이 웰빙지표로서 GD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위에서 측정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승희 외, 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연구원
- 김명소·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 김승관·장영식·조승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과행복지수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태, 2010, “행복지수와사회문화적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 박성환, 2009, “근대사회의행복논리”. <행복사회와문화정책의방향>
- 서은국, 2012, “행복의심리학적이해”. <충남발전연구원행복연구회내부발표자료>
- 서은국·구재산·이동규·정태연·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 이성규, 2006,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희길, 2012, “사회발전및웰빙측정”. <충남발전연구원행복연구회내부발표자료>
- 이희길·심수진, 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 통계개발원,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11.
- Esping-Anderson(2000), "Social Indicator and Welfare Mointoring :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Programm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Development.
- Lucas, R., A. Clark, Y. Georgellis, and E. Diener(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pp. 8-13

Noll, Heinz-Hervert(2004),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Genov, Nicolai Ed.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무엇이 우리사회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 - 행복조사를 중심으로 -

한 귀 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 I. 서론

### 1. 왜 행복인가

높은 자살율과 낮은 출산율은 짧은 시간 동안 고도성장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임.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삶은 더 팍팍해진 역설적 상황 속에서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에 비례해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은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성장주의’, 즉 부와 소득이 늘어나면 개인의 행복도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이라는 신념을 흔들고 있음. 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행복)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해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

성장과 효율을 국가 발전의 목표로 삼아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물질적 요인인 경제성장을 위해 삶의 질과 관련된 비물질적 요인들은 경시되어왔음. 이제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 및 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에서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 더 나아가 성장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품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됨.

성장과 효율은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이것이 극대화될 때 사회적 이익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가정함. 하지만 불평등, 양극화 심화 속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 극대화가 사회적 공공선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 다수가 함께 유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는 ‘좋은 삶’과 ‘좋은 사회’에 대한 고민을 포함함.

이미 어느 정도 물질적 성장을 이룬 서구 사회에서는 행복에 대한 관심도 높고 풍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음.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음. 행복을 주관적 만족이나 쾌락으로 보고 쾌락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인가, ‘좋은 삶’을 위해 개인의 가치와 역량의 극대화를 최우선에 둘 것인가라는 두 가지 접근이 그것임. 또한 주관적 만족감, 주관적 웰빙, 객관적 지표를 포함한 삶의 질 등 다양한 논의들이 있음.

그동안 논의되어 온 행복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행복 영향 요인이 무엇인가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져왔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음.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시도했음. 특히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은 현재 다른 집단과 비교해 어느 정도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미래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했음.

이번 조사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음.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토대로 하여, ‘물질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이라는 두 개의 범주와 이를 구성하는 11개의 웰빙 영역을 참고로 하여 14개의 항목을 선정했음. 14개 항목에 대한 각각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각 항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했음.

기존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대체로 소득보다 가족, 공동체 등 관계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소득과 같은 물질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한국 사회의 상황을 감안할 때, 행복 담론, 행복 정책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특수성, 가치변화 등도 살펴보고자 했음.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행복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담론은 어떠한지 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했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함께 충남지역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했음. 행복에 대한 가치의 공통점,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집단별 정책담론을 끌어내고자 했음.

## 2. 조사 방법

- 조사방식 : 전화면접조사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기관 : 여론조사 전문기관 MRCK
- 표본수 : 1400명 (전국 1000명 + 충남 400명)
- 표집방식 : 성, 연령, 지역별 할당표집
- 표본오차 :  $\pm 3.1$
- 조사일자 : 11월 28~29일

<표 1> 전국조사 표본 특성

		빈도(%)
전체		1000(100)
지역	서울	202(20.2)
	경기/인천	294(29.4)
	대전/충청	103(10.3)
	광주/전라	102(10.2)
	대구/경북	102(10.2)
	부산/울산/경남	156(15.6)
	강원/제주	41(4.1)
성별	남자	497(49.7)
	여자	503(50.3)
연령대	19~29세	177(17.7)
	30대	184(18.4)
	40대	213(21.3)
	50대	198(19.8)
	60세 이상	228(22.8)
학력별	중졸 이하	149(14.9)
	고졸	275(27.5)
	대재 이상	555(55.5)
	모름/무응답	21(2.1)
소득별	200만원 이하	246(24.6)
	201~400만원	285(28.5)
	401만원 이상	354(35.4)
	모름/무응답	115(11.5)

<표 2> 충남조사 표본 특성

		빈도(%)
전체		400(100)
읍/면/동	읍지역	102(25.4)
	면지역	115(28.7)
	동지역	183(45.8)
성별	남자	201(50.2)
	여자	199(49.8)
연령대	19~29세	64(16.0)
	30대	71(17.7)
	40대	80(20.0)
	50대	77(19.3)
	60세 이상	108(27.0)
학력별	중졸 이하	87(21.8)
	고졸	110(27.6)
	대재 이상	199(49.9)
	모름/무응답	4(0.7)
소득별	200만원 이하	120(30.0)
	201~400만원	111(27.8)
	401만원 이상	138(34.4)
	모름/무응답	31(7.9)

### 3. 행복 지표에 대한 논의

사회 발전에 대한 기존 경제중심의 패러다임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관적 행복,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1) 외국

2009년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전통적 경제지표인 GDP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의 질’ 지표 12개 권고사항을 권고함. 이는 기존 경제적 기준으로 사회 발전을 측정하던 방식에서 주관적 행복, 삶의 질을 통한 사회 발전의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됨.

이후 2012년 UN은 삶의 선택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자유, 소득, 기대수명 등을 조사한 내용과 인권지수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Life evaluation score)를 구성해 ‘제1차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함.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각국 국민들의 GDP,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부패,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합산함.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984점으로 전체 158개 조사 국 중 47위를 차지함. GDP, 기대수명, 갤럽이 실시한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 부패 등에 대한 세계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하였음.

<표 3> 행복지수 해외 주요 조사 및 조사항목

조사	주관 기관	주요 항목
Better Life Index (2011)	OECD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및 지속가능성을 세 가지 축으로 하는 전반적 삶의 웰빙 수준을 평가함. 주거, 소득, 고용, 교육성취, 환경, 기대수명, 범죄피해, 지원관계망, 시민참여, 일과 여가의 균형, 삶의 만족도 등 11개 분야 25개 지표로 구성됨.
World Happiness Report (2012)	UN	삶의 선택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자유, 소득, 기대수명 등과 UN 인권지수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측정함.
Human Development Index (1990)	UNDP	소득, 교육, 빈곤, 실업, 환경, 건강, 종교 등 인간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요소들을 기초로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 IMF에서 제공하는 PPP기준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외에 UN 자체조사인 각국 초·중·고등 교육수준, 문맹률, 기대수명, 의료수준 등의 자료를 포함.



OECD 또한 2011년부터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구성하여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제시함. BLI 지표는 크게 소득, 부, 직업, 주거 등이 해당하는 ‘물질적 생활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과 건강, 교육, 커뮤니티, 환경, 삶의 만족도가 포함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 발표된 BLI 지표에서 한국인의 삶은 OECD 36개국 가운데 물질적 삶의 차원에서 20위, 삶의 질 차원에서 29위로 나타남.

유엔개발계획(UNDP)는 ‘Human Development Index(HDI)’를 구성해 인간개발의 범주를 ‘오래 살고 건강한 삶(long and healthy life)’, ‘지식에 대한 접근(access to knowledge)’, ‘품위 있는 생활수준(decent standard of living)’으로 구분하고 있음. 평균수명, 1인당 국민소득, 교육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는 사회·경제 발전의 척도로 삶의 수준으로 간주됨.

이외 영국의 신경경제학단(NEF)는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를 만들어 2006년 이후 3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음. 웰빙 경험, 기대 수명, 생태발자국이라는 세 가지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최근 발표한 2015년 ‘지구촌행복지수’에서는 151개국 중 한국이 60위를 차지하였음.

네덜란드 에라무스 대학교의 빈호벤(Ruut Veenhoven) 교수는 행복지수에 관한 광범위한 ‘세계행복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를 구축해 행복에 관한 다양한 조사 문항과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복 연구로는 부탄의 GNH 지표, 영국의 GNW 지표, 캐나다의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survey 2012 six councils report' 등이 있음.

부탄은 1970년대부터 ‘국민 총 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을 통해 경제적 성장이 아닌 국민 행복을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삼고 있음. ‘국민 총 행복’ 지표는 시간 활용, 생활 수준, 거버넌스, 심리적 웰빙, 공동체 활력, 문화, 건강, 교육, 생태 등으로 구성됨.

영국은 통계청에서 2010년 캐머런 정부가 국가성장 측정을 위한 GDP 경제지표의 대안으로 제시한 ‘웰빙지표(General Wellbeing Index)’를 제공하고 있음. 개인행복, 관계, 건강,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사는 곳, 개인 재정, 교육과 기술, 경제, 거버넌스, 자연환경 10개 영역, 42개 지표로 구성되어있음.

## 2) 국내

국내에서도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지표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등이 대표적임.

통계청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목적의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국민 삶의 질’ 측정 체계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와 유사하게 12개 영역 81종의 지표로 구성, 물질부문(4개 영역)과 비물질부문(8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객관지표 57종, 주관지표 24종이 선정됨.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도 우리나라 행복조사의 대표적인 연구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연구는 사회통합 및 행복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회통합과 행복에 대한 정확한 실태 진단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4>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성 항목

명칭			국민 삶의 질 측정
주기			1년
지수			지표
분석			시계열 비교
영역 수			12영역
지표수(주관지표수)			84(26)
주관지표 비율(%)			31.0
물질적	생활수준	소득/소비/자산	8(2)
		노동	4(1)
	사회복지		3
	주거		4(1)
	건강		8(2)
비물질적	교육/기술		10(2)
	문화/여가	생활시간	6(2)
		문화/여가활동	
	사회적관계 /가족	사회적관계	9(2)
		가족	
	사회시스템	시민참여/거버넌스	10(8)
		안전/범죄	9(2)
	환경		11(2)
	주관적웰빙		2(2)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는 매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시행함. 한국인의 주요 가치 및 태도, 속성, 행동방식, 일상생활 양태 등에 대한 설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함. 최근 서울연구원에서는 OECD의 BLI 지수를 기반으로 서울형 행복지표를 구축해 서울시민의 행복 요소를 파악하였음.

경제지표를 통한 조사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EHI)’가 있음.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요소를 지수화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II. 주요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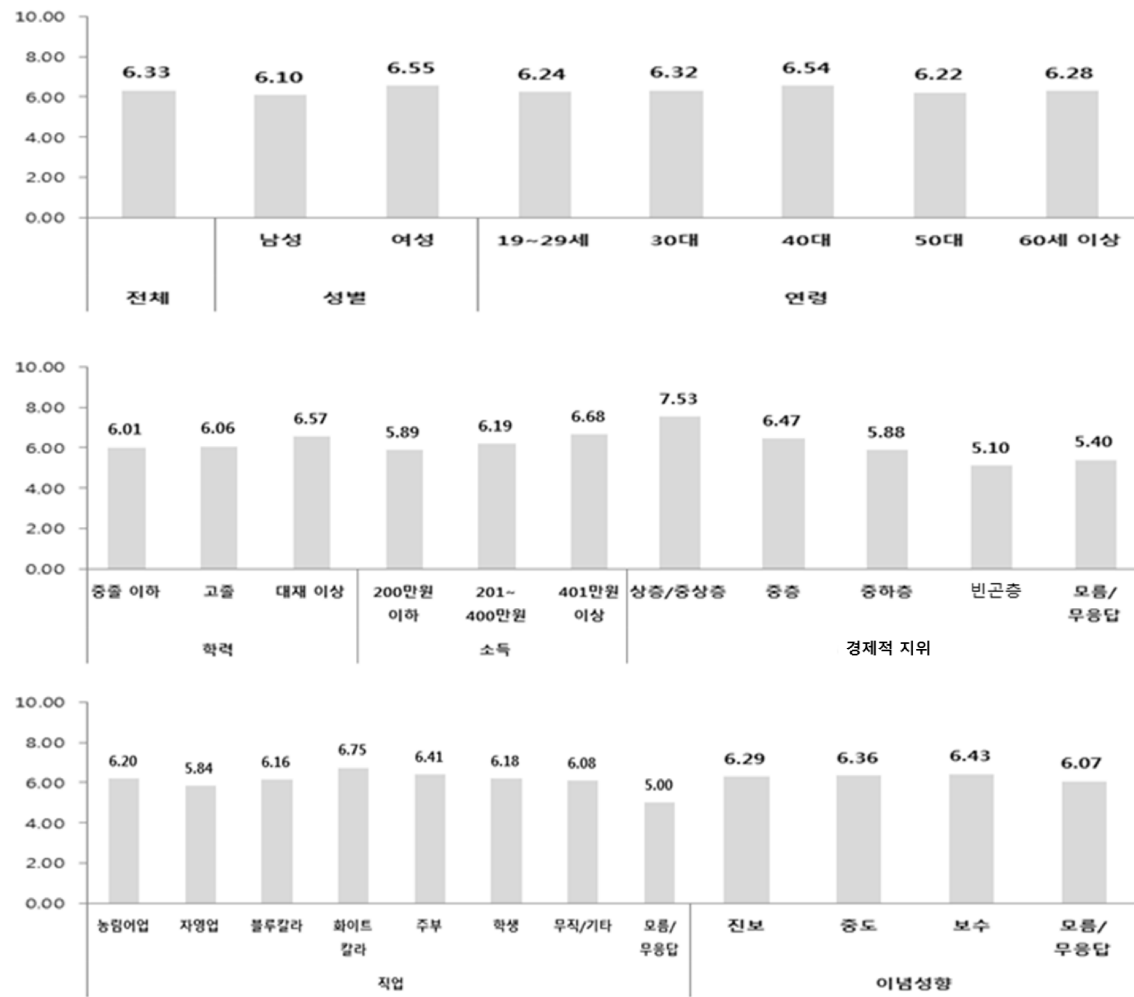
1. 행복수준 비교

1) 집단별 행복 격차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설문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 6.33점(최저 0점, 최고 10점, 중간 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성, 연령, 계층 등에 따라 개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도 차이가 났음.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대전/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했음.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좀 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현재 주관적 행복감



연령별로는 역 U자형으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 40대와 30대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50대와 20대, 60대 순으로 낮았음.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얻고 있는 연령층에서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음. 대체로 35세 미만 젊은층이 40대 이상 중장년층보다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있었음.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커졌음.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학력으로 대표되는 인적 자본을 많이 보유할수록 행복감도 상승한 것으로 보임.

소득은 물론 자산까지 고려한 경제적 지위도 빈곤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행복수준이 상승했고, 빈곤층으로 갈수록 급락했음. 중상층 이상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이 7.53점, 빈곤층에서는 5.10점으로 행복격차가 매우 컸음.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주부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층은 자영업층이었음. 경기침체 속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층의 불안감이 큼을 보여주는 대목임.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행복수준도 다르게 나타나 보수>중도>진보 순으로 행복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음.

요약하면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40대, 대재 이상 고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지위 중상층 이상층, 화이트칼라, 주부층 등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지위 중하층, 자영업층 등임.

## 2) 우리사회의 행복수준(사회의 질)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행복정도를 살펴본 결과 4.96점으로 중간 이하로 나타남. 주관적 행복감(6.33점)과 비교해 적잖은 차이가 났음.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행복한 쪽에 가깝다고 긍정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질은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주관적 행복도는 ‘주관적 웰빙’, 개인의 ‘삶의 질’에 가까운 반면, 사회적 행복정도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웰빙’이자 ‘사회의 질’이라 할 수 있음.

우리사회가 행복한 사회에 가깝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층은 50대 이상 고연령층, 중졸이하 저학력층, 주부층, 보수성향층 등임. 대체로 보수안정지향적인 집단일수록 우리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음.

개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평가가 특히 크게 차이가 나는 집단은 경기/인천 지역, 여성,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 고학력, 고소득층, 화이트칼라층, 경제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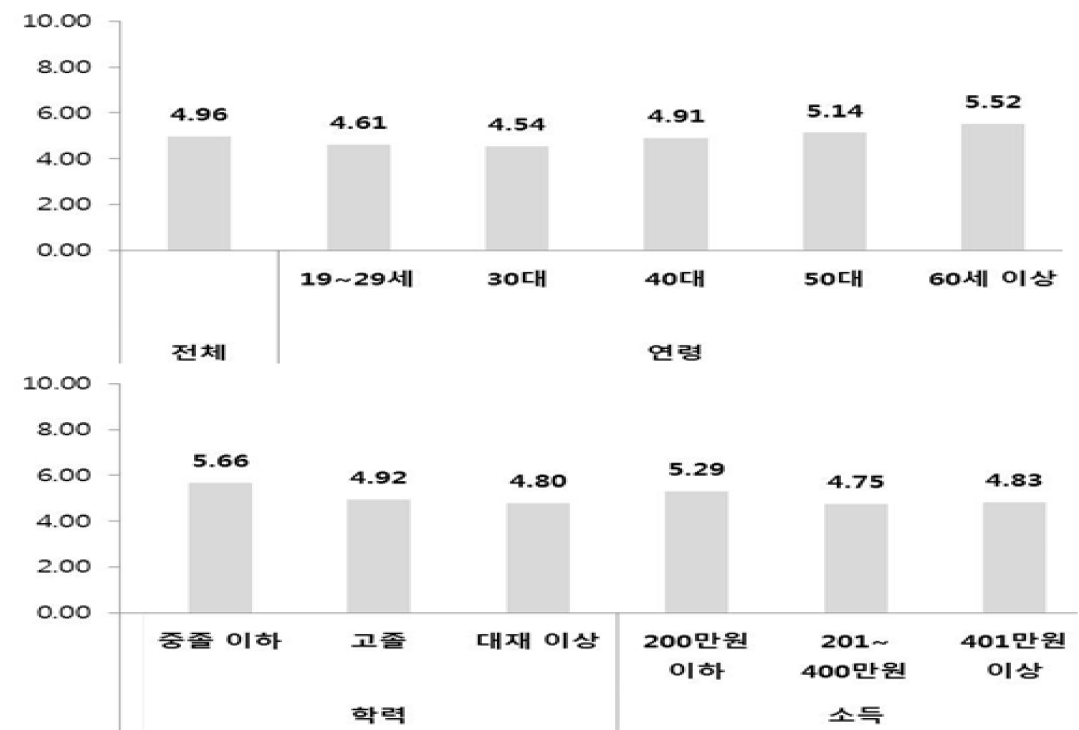
중상층 이상, 진보층 등임.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높은 집값과 극심한 경쟁, 과도한 교육열 등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피로감이 사회의 질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모든 연령층 중 주관적 삶의 질과 이들이 바라보는 사회의 질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층은 30대였음. 치솟는 전세값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과도한 교육비로 인한 교육불안, 육아불안 등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느끼는 층이 바로 30대이기 때문임.

고학력, 고소득층은 주관적 삶의 질은 높지만 사회의 질에 대한 평가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학력, 소득 등 개인이 보유한 자본으로 인해 개인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삶의 질을 확보할만한 여력이 있지만 우리사회의 객관적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이들의 눈높이와 현실 간의 간극이 큰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 사회적 행복정도



〈표 5〉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의 질’ 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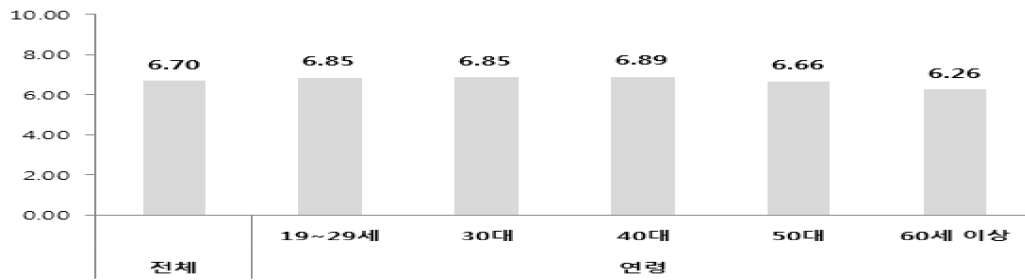
		주관적 삶의 질(A)	사회의 질(B)	A-B
전체		6.33	4.96	1.36
지역	서울	6.19	4.79	1.40
	경기/인천	6.49	4.96	1.53
	대전/충청	6.50	4.90	1.60
	광주/전라	6.33	5.08	1.24
	대구/경북	6.16	5.13	1.03
	부산/울산/경남	6.12	4.93	1.20
	강원/제주	6.54	5.39	1.15
성별	남성	6.10	4.81	1.29
	여성	6.55	5.11	1.43
연령	19~29세	6.24	4.61	1.63
	30대	6.32	4.54	1.78
	40대	6.54	4.91	1.63
	50대	6.22	5.14	1.08
	60세 이상	6.28	5.52	0.76
학력	중졸 이하	6.01	5.66	0.35
	고졸	6.06	4.92	1.14
	대재 이상	6.57	4.80	1.77
소득	200만원 이상	5.89	5.29	0.60
	201~400만원	6.19	4.75	1.44
	401만원 이상	6.68	4.83	1.85
직업	농림어업	6.20	5.45	0.75
	자영업	5.84	4.81	1.03
	블루칼라	6.16	5.00	1.16
	화이트칼라	6.75	4.79	1.96
	주부	6.41	5.36	1.04
	학생	6.18	4.52	1.66
	무직/기타	6.08	5.21	0.88
	모름/무응답	5.00	5.51	-0.52
경제적 지위	상층/중상층	7.53	5.21	2.32
	중층	6.47	5.03	1.44
	중하층	5.88	4.79	1.08
	빈곤층	5.10	4.76	0.34
	모름/무응답	5.40	3.92	1.48
이념성향	진보	6.29	4.66	1.63
	중도	6.36	4.87	1.49
	보수	6.43	5.29	1.14
	모름/무응답	6.07	4.94	1.12

### 3) 미래 행복 기대감

"5년 후 선생님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라는 설문을 통해 미래 행복 기대감을 살펴본 결과 6.70점으로 나타남. 개인들이 현재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6.33점)과 비교해 높아짐. 현재보다는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현재보다 미래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아지리라는 기대심리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20대와 30대, 대재 이상 고학력층, 자영업, 화이트칼라, 학생층, 진보성향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 개인의 미래 주관적 행복감



<표 6> 주관적 행복감 비교 : 현재와 미래

		현재 주관적 행복감(A)	미래 주관적 행복감(B)	B-A
전체		6.33	6.70	0.38
지역	서울	6.19	6.38	0.18
	경기/인천	6.49	6.84	0.35
	대전/충청	6.50	6.93	0.43
	광주/전라	6.33	6.57	0.25
	대구/경북	6.16	6.89	0.73
	부산/울산/경남	6.12	6.67	0.54
	강원/제주	6.54	6.70	0.17
성별	남성	6.10	6.46	0.36
	여성	6.55	6.94	0.40
연령	19~29세	6.24	6.85	0.61
	30대	6.32	6.85	0.53
	40대	6.54	6.89	0.35
	50대	6.22	6.66	0.44
	60세 이상	6.28	6.26	-0.02
학력	중졸 이하	6.01	5.90	-0.11
	고졸	6.06	6.45	0.39
	대재 이상	6.57	7.05	0.48
소득	200만원 이상	5.89	6.11	0.22
	201~400만원	6.19	6.67	0.48
	401만원 이상	6.68	7.07	0.39
직업	농림어업	6.20	6.18	-0.03
	자영업	5.84	6.40	0.56
	블루칼라	6.16	6.55	0.39
	화이트칼라	6.75	7.20	0.45
	주부	6.41	6.69	0.29
	학생	6.18	6.71	0.53
	무직/기타	6.08	5.91	-0.17
	모름/무응답	5.00	4.43	-0.57
	상층/중상층	7.53	7.91	0.38
경제적 지위	중층	6.47	6.91	0.44
	중하층	5.88	6.23	0.35
	빈곤층	5.10	5.15	0.05
	모름/무응답	5.40	6.00	0.59
	진보	6.29	6.78	0.49
이념성향	중도	6.36	6.76	0.40
	보수	6.43	6.75	0.32
	모름/무응답	6.07	6.30	0.24

반면, 60세 이상, 저학력층, 농림어업층 등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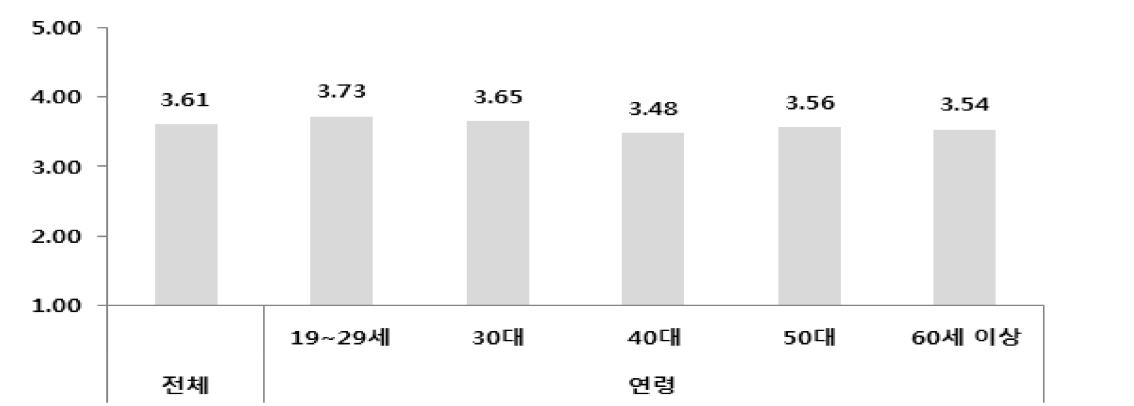
미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기대는 학력 등 인적자본이 풍부하거나,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원의 행복정도, 즉 사회의 질은 현재(4.96점)와 미래(5.01점)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음.

우리사회 구성원 개인 차원에서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현재(4.96점)는 물론 미래(5.01점)에도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 현재 행복정도는 ‘행복하다’ 60%, ‘비슷하다’ 28.8%, ‘행복하지 않다’ 11% 등으로 나타남.

<그림 4> 개인의 상대적 행복감



상대적 주관적 행복감은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칼라,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교육이나 소득 등 물질적 조건을 충분히 갖춘 층일수록 상대적 행복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7> 행복 구성 항목 설문 내용 1

항목	설문 내용
현재 주관적 행복감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미래 주관적 행복감	5년 후 선생님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 행복감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의 현재 삶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떤 편입니까?
현재 사회적 행복정도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적 행복정도	5년 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 2. 행복 구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

### 1) 행복 구성 항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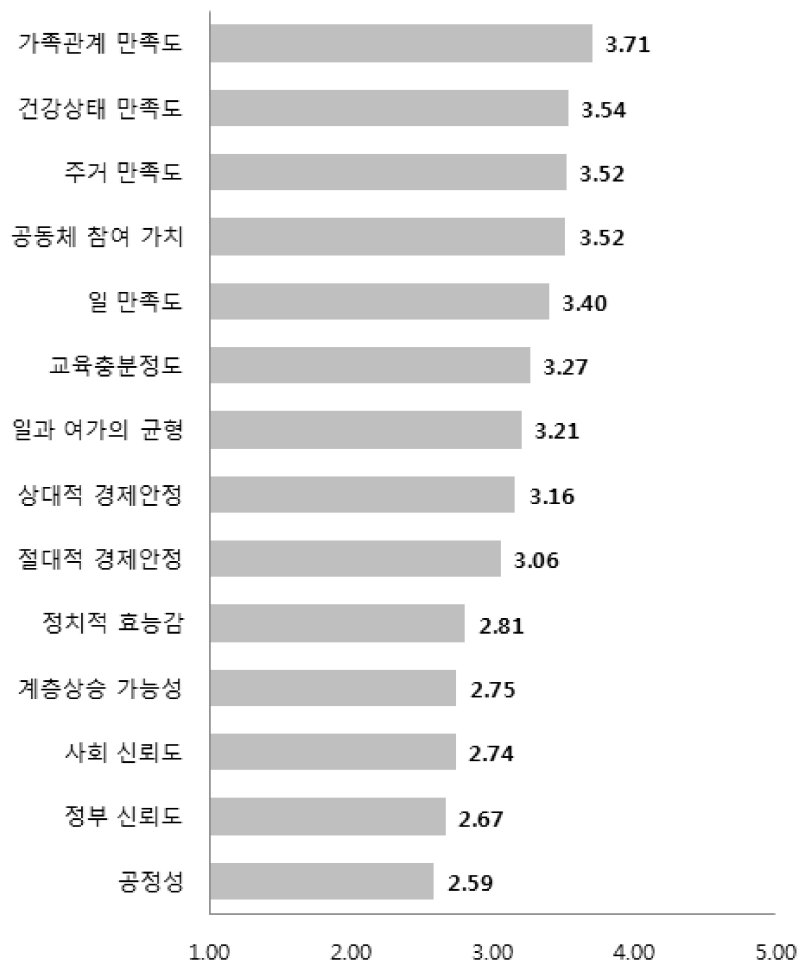
행복을 구성하는 14개 항목에 대해 주관적 만족도 및 평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 만족도, 주거 만족도, 공동체 참여 가치, 일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정부 신뢰, 사회 신뢰,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등은 중간값 이하의 낮은 평가에 머무르고 있었음.

개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71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낮았음 (최저 1점, 최고 5점, 중간 3점).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4점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저학력, 저소득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주거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52점이었음.

<그림 5> 행복 구성 항목 만족도 비교



지역사회 참여 및 공동체 활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3.5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40대, 고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이상 소득층, 화이트칼라, 경제적 지위 중상이상층, 진보성향층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일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40점으로 나타남. 30대와 40대 등 경제활동 중심연령층,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칼라층과 자영업층, 경제적 지위 중상층 이상층 등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교육 및 기술 보유 항목에 대한 평가는 3.27점으로 전체 항목 중 중간 수준이었음.

일과 여가 등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는 3.21점으로 30대에서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됨.

주변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3.16점으로 나타나 절대적 경제적 안정성(3.06점)보다 약간 높았음. 대체로 주변과 비교해서는 좀 더 자신의 상황을 높게 평가하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현재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6점이었음.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층은 대전/충청권, 여성, 고학력, 고소득층, 화이트칼라층 등이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층은 광주/전라, 서울지역, 저학력, 저소득, 블루칼라층 등임.

정치 참여를 통한 우리사회 변화 가능성(정치효능감)에 대한 평가는 2.81점으로 다른 항목 대비 낮은 축에 속함. 경제적 지위 중상층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에서 중간 이하로 나타남.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2.75점으로 나타남. 30대, 고학력층, 화이트칼라, 진보성향층 등에서 특히 낮게 나타남. 반면 60대 이상, 저학력층 등에서는 중간값인 3점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집단별 인식차가 나타남.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2.74점으로 정부 신뢰도와 함께 매우 낮게 나타남. 60대 이상, 저학력층, 보수성향층 등에서만 중간인 3점에 육박했을 뿐 다른 집단에서는 중간 이하에 머물렀음.

우리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6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60세 이상, 저학력층, 보수층에서만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은 중간값 이하에 머물렀음. 특히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져 정부 신뢰가 특히 낮은 40대 이하와 그렇지 않은 50대 이상이 대조를 이룸.

우리사회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2.59점으로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았음. 대부분의 집단에서 중간값인 3점에 못 미친 가운데, 30대, 중간이하층, 진보성향층 등에서 특히 낮게 나타남.

<표 8> 행복 구성 항목 설문 내용 2

항목	설문
절대적 경제안정성	현재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상대적 경제안정성	주변사람들과 비교할 때 선생님의 경제적 안정성은 어떤 편입니까?
일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일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주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건강	선생님의 건강상태는 어떤 편입니까?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여가 등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가족관계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육충분정도	선생님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을 얼마나 충분히 가지고 계신지요?
정치효능감	선생님은 투표 등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공동체 참여 가치	선생님께서는 지역사회 참여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 응답)
사회신뢰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신뢰	우리나라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계층상승 가능성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려있다고 보십니까?
공정성	우리사회에서 능력과 노력에 맞는 보상이 얼마나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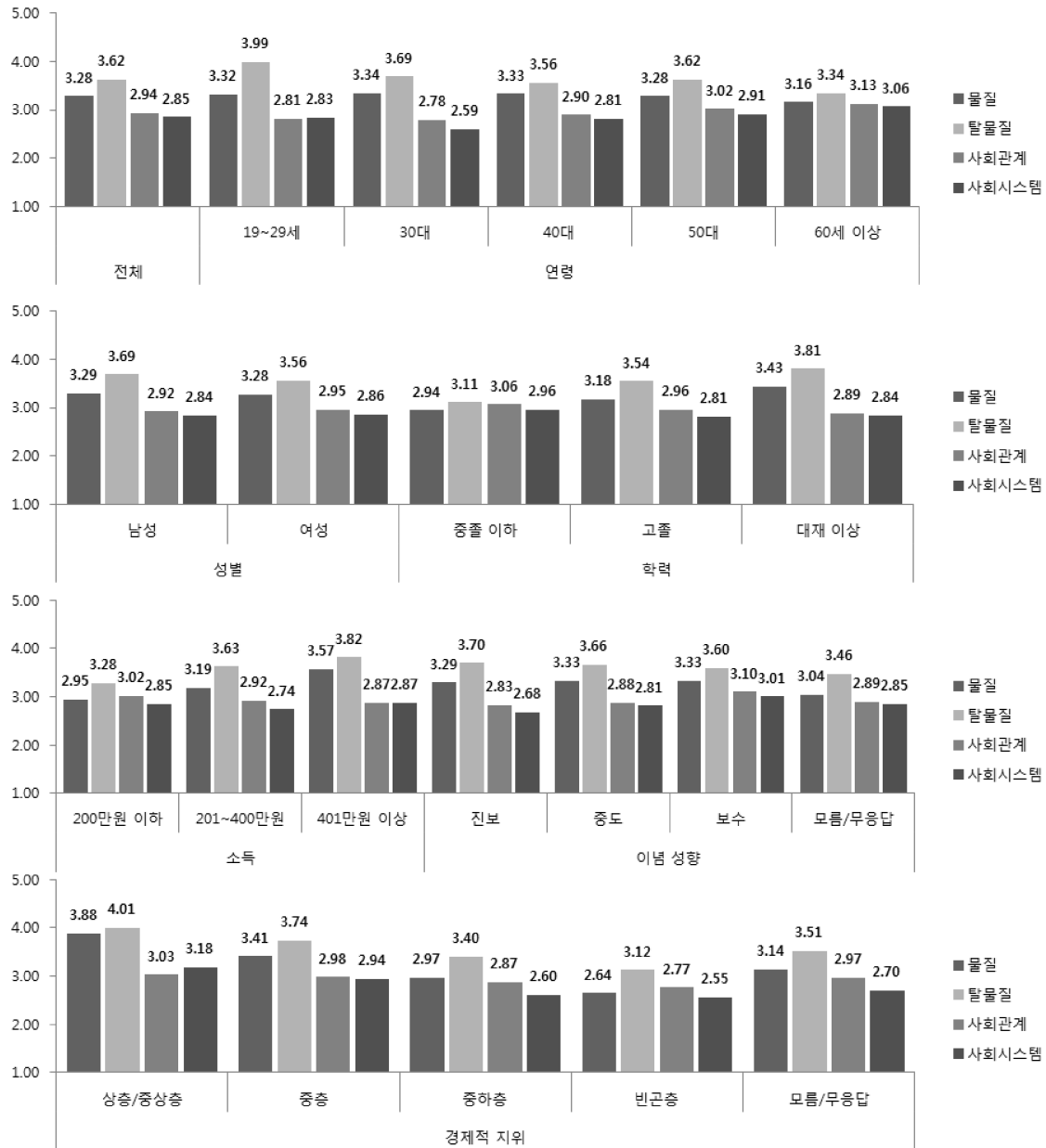
## 2) 행복 구성 항목의 범주별 비교 : 물질/탈물질/사회관계/사회시스템

행복을 구성하는 14개 항목을 물질요인, 탈물질요인, 사회관계요인, 사회시스템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요인분석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위의 4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주요 내용과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9>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주화

	정의	항목
물질요인	소득과 부 등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요인들	절대적 경제안정 / 상대적 경제안정 / 교육 / 일 / 주거
탈물질요인	건강, 가족관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	건강 / 가족관계
사회관계요인	공동체, 사회, 정부 신뢰 및 참여와 관련된 요인들	정치효능감 / 사회신뢰 / 정부신뢰 / 공동체참여
사회시스템요인	공정성, 계층이동 개방성 등 사회구조 및 시스템 관련 요인들	공정성 / 계층상승 가능성 / 일과 여가의 균형

<그림 6> 물질/탈물질/사회관계/사회시스템 평균점수 비교



네 가지 범주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하면 탈물질요인이 3.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질요인이 3.28점으로 그 다음 순으로 높았음. 반면 사회관계요인은 2.94점, 사회시스템요인은 2.85점으로 중간 이하로 나타남. 대체로 개인적 차원에 관계된 요인보다 사회적 차원의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 성별

네 가지 요인에 대한 성별 차이는 탈물질요인에 대해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 탈물질요인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 가족관계, 건강 등과 같은 탈물질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치가 더 높아 현실과의 괴리를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됨.

#### □ 연령별

연령별 네 가지 요인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남. 물질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50대 이상 중장년층보다 경제활동 주연령층인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탈물질요인 만족도는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과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음. 40대는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조화가 어렵다는 점이, 60대 이상에서는 건강 불안, 배우자 및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사회관계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세대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남.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매우 낮았음. 젊은층에서 정부, 사회신뢰 등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음.

사회시스템 요인에 대한 만족도도 세대별 차이가 컸으며 특히 30대에서 매우 낮았음. 30대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장 강한 층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학력별

학력별로 네 가지 요인별 만족도 차이도 두드러졌으나, 물질적, 탈물질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정반대로 나타나 주목됨.

물질요인과 탈물질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인적 자본이 높은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관계요인과 사회시스템요인은 저학력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고학력층일수록 사회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크지만 현실은 이에 못 미치는 등 간극이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소득별

물질요인과 탈물질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이상일수록 높았음. 반면 사회관계요인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대비됨.

공정성과 계층이동의 개방성 등과 같은 사회시스템 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 □ 직업별

물질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화이트칼라층에서 가장 높고, 주부층, 농림어업, 블루칼라층 등에

서 상대적으로 낮았음.

탈물질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화이트칼라층 등에서 특히 높았고, 주부층에서 가장 낮았음.

사회관계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주부층과 농림어업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영업과 학생층에서 가장 낮았음.

사회시스템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주부층과 농림어업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화이트칼라층에서 특히 낮았음.

#### □ 경제적 지위

물질요인, 탈물질요인에 대한 만족도 모두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계층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중상층 이상에서는 물질요인과 탈물질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3.88점, 4.01점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은 반면, 빈곤층에서는 각각 2.64점, 3.12점으로 가장 낮았음.

사회관계요인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도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사회관계요인의 경우 만족도가 중상층 이상 3.03점, 빈곤층 2.77점으로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사회시스템요인은 중상층 이상 3.18점, 빈곤층 2.55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음.

#### □ 이념성향별

물질요인과 탈물질요인 만족도는 이념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음.

하지만 사회관계요인과 사회시스템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보수층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층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격차도 비교적 컸음. 기대와 현실의 간극, 현 정부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3. 행복결정요인 분석

#### 1) 전체

##### □ 주관적 행복감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절대적 경제안정성, 상대적 경제안정성, 일, 주거, 가족관계, 사회신뢰, 일과 여가의 균형 등과 같은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65	.337		1.380
물질 요인	절대적 경제안정	.197**	.039	.205	5.099
	상대적 경제안정	.082*	.042	.082	1.960
	일	.121**	.037	.121	3.275
	주거	.077*	.036	.074	2.126
	교육충분정도	-.004	.031	-.004	-.119
탈물질 요인	건강	.050	.032	.050	1.559
	가족관계	.109**	.035	.105	3.121
사회 관계적 요인	정치 효능감	.013	.026	.015	.500
	공동체 참여 (가치)	.035	.032	.034	1.109
	사회 신뢰	.140***	.038	.141	3.662
	정부 신뢰	-.016	.036	-.019	-.463
사회 시스템 요인	일과 여가의 균형	.081*	.037	.082	2.154
	계층상승 가능성	.057	.036	.059	1.593
	공정성	.002	.040	.002	.053
성별(1남성 2여성)		.124*	.054	.064	2.322
연령		.002	.024	.002	.064
학력		.024	.049	.018	.495
소득		-.040	.041	-.033	-.965
경제적 지위(낮을수록 상층)		-.055	.038	-.052	-1.455
수도권		-.012	.139	-.006	-.086
대전충청		-.067	.157	-.021	-.428
광주전라		-.017	.158	-.005	-.110
대구경북		-.066	.157	-.021	-.422
부산울산경남		-.144	.150	-.053	-.963
R		.654a			
R 제곱		.427			
수정된 R 제곱		.410			
F		24.466			

#p<.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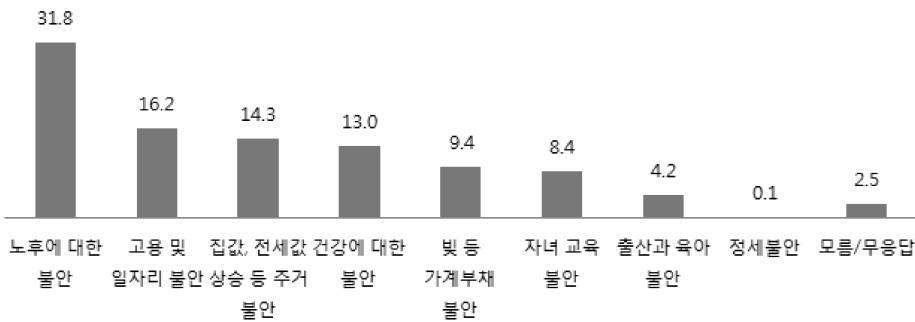
즉 절대적, 주변과 비교한 상대적 경제안정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과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가족, 공동체 등과 같은 탈물질적 요인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이 아직까

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불평등한 경제구조,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개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이 크기 때문으로 보임. 실제 기존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지난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노후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음.

<그림 7> 현재 가장 불안한 부분  
 (자료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5년 11월)

현재 선생님의 삶에 있어 가장 불안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족관계, 일과 여가의 균형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의 영향력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삶의 질과 관련된 탈물질 가치 중시 등 가치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사회신뢰는 절대적 경제안정성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회는 개인의 기회구조는 물론 공정한 경쟁과 보상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이 점에서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는 사회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개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구특성 및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즉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음.

□ 미래 주관적 행복감

회귀분석을 통해 미래 주관적 행복감(5년 후에는 어느 정도 행복할 것으로 보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절대적 경제안정, 일, 주거에 대한 만족도, 사회신뢰, 계층상승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성, 연령, 학력, 경제적 지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현재 누리는 경제안정 외에도 일이 미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남. 만연



한 고용불안 속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안정된 소득은 물론 가족관계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임.

미래 주관적 행복감에 있어 사회신뢰의 영향력도 매우 강력하게 나타남. 사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미래 사회의 질이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감도 낮다는 의미임. 우리사회의 낮은 사회신뢰도가 개인들의 미래 행복 기대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계층상승기회가 개방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미래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구조화되는 계급사회에서는 개인이 노력을 통해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이에 따라 사회의 활력도 약화됨을 의미함.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미래 주관적 행복감도 높게 나타났음. 즉, 50대 이상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학력 등 인적 자본이 적을수록 미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음.

<표 11> 미래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08**	.369		2.731
물질 요인	절대적 경제안정	.186***	.042	.185	4.402
	상대적 경제안정	.016	.046	.016	.358
	일	.128***	.041	.122	3.121
	주거	.082*	.040	.074	2.019
	교육충분정도	.042	.034	.041	1.228
탈물질 요인	건강	.032	.035	.031	.907
	가족관계	.037	.039	.034	.954
사회 관계적 요인	정치 효능감	.030	.028	.034	1.046
	공동체 참여 (가치)	-.004	.035	-.003	-.103
	사회 신뢰	.131***	.042	.126	3.110
	정부 신뢰	.025	.039	.027	.648
사회 시스템 요인	일과 여가의 균형	.050	.041	.049	1.209
	계층상승 가능성	.072#	.040	.071	1.787
	공정성	.012	.044	.010	.264
성별(1남성 2여성)		.233***	.059	.116	3.976
연령		-.059*	.026	-.078	-2.231
학력		.135*	.054	.093	2.514
소득		-.051	.045	-.040	-1.117
경제적 지위(낮을수록 상층)		-.147***	.042	-.132	-3.513
수도권		-.047	.154	-.023	-.303
대전충청		-.046	.173	-.014	-.266
광주전라		.009	.175	.003	.051
대구경북		.111	.174	.033	.640
부산울산경남		.016	.166	.006	.094
R		.624 <sup>a</sup>			
R 제곱		.390			
수정된 R 제곱		.371			
F		20.328			

#p<.1 \*p<.05 \*\*p<.01 \*\*\*p<.001

□ 사회적 행복정도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행복정도(사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 결과 절대적 경제안정성, 주거, 건강, 사회신뢰, 계층상승 가능성, 공정성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절대적 경제안정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질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남.

사회적 행복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사회신뢰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사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경우, 우리사회가 살만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게 됨을 의미함. 우리사회의 낮은 사회 신뢰도가 사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아울러 계층상승 가능성, 기회와 보상의 공정성 등에 대한 불신이 우리사회의 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시스템의 구축, 노력을 통해 성취가 가능

<표 12> 사회적 행복정도 영향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941**	.314		3.001
물질 요인	절대적 경제안정	.083*	.036	.105	2.340
	상대적 경제안정	.060	.039	.072	1.548
	일	-.005	.035	-.006	-.153
	주거	.077*	.034	.090	2.291
	교육충분정도	-.007	.029	-.009	-.241
탈물질 요인	건강	-.052#	.030	-.062	-1.711
	가족관계	.050	.032	.059	1.548
사회 관계적 요인	정치 효능감	.020	.024	.029	.828
	공동체 참여 (가치)	.026	.030	.030	.874
	사회 신뢰	.127***	.036	.154	3.509
	정부 신뢰	.052	.033	.071	1.569
사회 시스템 요인	일과 여가의 균형	-.005	.035	-.006	-.136
	계층상승 가능성	.059#	.033	.073	1.751
	공정성	.102**	.037	.117	2.746
성별(1남성 2여성)		.122*	.050	.076	2.445
연령		.050*	.022	.085	2.240
학력		-.088#	.045	-.077	-1.938
소득		-.022	.038	-.022	-.569
경제적 지위(낮을수록 상층)		.023	.035	.026	.652
수도권		.030	.131	.019	.230
대전충청		-.035	.147	-.013	-.239
광주전라		.105	.148	.039	.706
대구경북		.079	.148	.029	.533
부산울산경남		-.002	.141	-.001	-.016
R		.543 <sup>a</sup>			
R 제곱		.295			
수정된 R 제곱		.273			
F		13.341			

#p<.1 \*p<.05 \*\*p<.01 \*\*\*p<.001

한 업적시스템 등의 회복 등을 통해 사회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행복을 높이는 데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음.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행복정도도 높게 나타남.

2) 집단별

□ 성별

회귀분석 결과, 남성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안정성, 일, 주거 등에 대한 만족도 등임. 또한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계층이동이 개방적이라고 평가할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성별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모형		남성				여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4	.466		.781	.908	.459		1.978
물질 요인	절대적 경제안정	.197***	.057	.200	3.493	.196***	.053	.211	3.672
	상대적 경제안정	.110	.062	.105	1.770	.070	.057	.074	1.238
	일	.189***	.058	.185	3.272	.026	.049	.027	.530
	주거	.110*	.056	.099	1.966	.005	.048	.006	.113
	교육충분정도	.008	.046	.008	.178	-.007	.043	-.008	-.164
탈물질 요인	건강	.030	.047	.028	.631	.106*	.045	.114	2.324
	가족관계	.041	.053	.039	.790	.188***	.047	.192	3.969
사회 관계적 요인	정치 효능감	.015	.037	.018	.405	.006	.037	.007	.156
	공동체 참여(가치)	.017	.048	.016	.357	.062	.046	.058	1.368
	사회 신뢰	.123*	.058	.122	2.134	.174***	.052	.180	3.370
	정부 신뢰	.009	.051	.011	.184	-.046	.050	-.053	-.924
사회 시스템 요인	일과 여가의 균형	.053	.056	.052	.961	.103*	.052	.111	1.971
	계층상승 가능성	.107*	.052	.109	2.075	-.034	.052	-.036	-.657
	공정성	-.047	.059	-.043	-.786	.057	.054	.055	1.066
연령		.001	.034	.001	.020	.018	.036	.028	.504
학력		.060	.071	.040	.835	-.014	.068	-.012	-.210
소득		-.039	.063	-.030	-.629	-.054	.055	-.050	-.996
경제적 지위(낮을수록 상층)		-.023	.057	-.020	-.401	-.086	.051	-.089	-1.692
수도권		-.019	.218	-.009	-.088	.041	.178	.023	.232
대전충청		.014	.244	.004	.059	-.100	.203	-.034	-.495
광주전라		.044	.249	.012	.176	-.002	.202	-.001	-.008
대구경북		-.038	.243	-.011	-.155	-.029	.202	-.010	-.142
부산울산경남		-.083	.233	-.030	-.355	-.123	.194	-.048	-.635
R		.658				.673a			
R 제곱		.433				.453			
수정된 R 제곱		.400				.419			
F		13.106				13.292			

#p<.1 \*p<.05 \*\*p< .01 \*\*\*p< .001

반면 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안정성, 건강, 가족관계, 일과 여가의 균형 등임. 아울러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졌음.

남성은 일과 주거 등 물질적 기회구조, 여성은 가족, 건강, 일과 여가의 균형 등 탈물질적 요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차이가 드러남.

□ 연령별

회귀분석 결과 20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동체참여에 대한 가치부여, 사회신뢰, 정부신뢰, 일과 여가의 균형 등임. 즉 공동체참여에 높은 가치를 둘수록,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일과 여가의 균형에 만족할수록 행복감도 높아졌음.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를 신뢰할수록 행복감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임. 현 정부에 대한 20대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표 14>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_20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85	.947		.089
물질 요인	절대적 경제안정	.118	.094	.139	1.249
	상대적 경제안정	.077	.095	.091	.810
	일	.130	.091	.152	1.424
	주거	.006	.091	.006	.061
	교육충분정도	.079	.088	.084	.898
탈물질 요인	건강	.078	.076	.088	1.015
	가족관계	.042	.089	.043	.469
사회 관계적 요인	정치 효능감	.037	.062	.051	.590
	공동체 참여(가치)	.157#	.080	.164	1.952
	사회 신뢰	.201*	.100	.214	2.013
	정부 신뢰	-.177#	.092	-.216	-1.922
사회 시스템 요인	일과 여가의 균형	.196*	.088	.223	2.229
	계층상승 가능성	.102	.084	.122	1.220
	공정성	-.020	.098	-.021	-.208
성별(1남성 2여성)		.073	.138	.042	.531
학력		.006	.197	.002	.030
소득		-.112	.105	-.096	-1.072
경제적 지위(낮을수록 상층)		.020	.091	.021	.216
수도권		.100	.388	.057	.257
대전충청		-.137	.430	-.053	-.318
광주전라		-.173	.444	-.056	-.391
대구경북		.103	.448	.032	.230
부산울산경남		-.210	.431	-.081	-.487
R		.668a			
R 제곱		.446			
수정된 R 제곱		.321			
F		3.570			

#p<.1 \*p<.05 \*\*p<.01 \*\*\*p<.001

한편, 20대에게는 경제적 안정성, 일, 주거 등과 같은 물질적 요인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함. 오히려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20대의 행복에 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적잖음. 우리사회가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회복하고 사회신뢰를 회복하는 등 ‘사회의 질’을 높여야 20대도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0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거, 가족관계, 일과 여가의 균형, 소득 등이었음. 주거가 안정될수록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점은 30대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임.

또한 가족관계, 일과 여가의 균형 등 탈물질적 가치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됨. 오히려 소득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중심 연령층인 30대에게는 당장의 소득보다 가족, 여가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음.

<표 15>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_30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25	.712		.878
물질 요인	절대적 경제안정	.134	.081	.151	1.656
	상대적 경제안정	.005	.103	.005	.052
	일	-.031	.077	-.032	-.411
	주거	.183*	.078	.180	2.359
	교육충분정도	.070	.065	.073	1.082
탈물질 요인	건강	.091	.072	.084	1.256
	가족관계	.215**	.074	.221	2.885
사회 관계적 요인	정치 효능감	-.102#	.058	-.130	-1.759
	공동체 참여(가치)	.011	.072	.011	.148
	사회 신뢰	.099	.089	.093	1.104
	정부 신뢰	.128	.091	.129	1.400
사회 시스템 요인	일과 여가의 균형	.191*	.079	.210	2.416
	계층상승 가능성	.061	.082	.063	.741
	공정성	.019	.095	.019	.201
성별(1남성 2여성)		.039	.110	.021	.354
학력		.158	.152	.064	1.040
소득		-.181*	.089	-.130	-2.027
경제적 지위(낮을수록 상층)		.011	.085	.010	.132
수도권		-.577	.349	-.305	-1.652
대전충청		-.333	.398	-.113	-.836
광주전라		-.679#	.407	-.196	-1.669
대구경북		-.541	.393	-.174	-1.378
부산울산경남		-.813*	.397	-.304	-2.050
R		.775 <sup>a</sup>			
R 제곱		.600			
수정된 R 제곱		.534			
F		9.113			

#p<.1 \*p<.05 \*\*p< .01 \*\*\*p< .001

40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제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일, 건강, 가족관계, 사회신뢰 등이 영향을 미쳤음. 한편, 40대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행복감이 다르게 나타나, 여성일수록 행복감도 더 높고, 남성일수록 더 하락했음.

50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안정성과 정치효능감이었고, 60대는 경제안정성과 가족관계였음.

<표 16>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_40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00	.700		.000
물질 요인	절대적 경제안정	.254**	.092	.234	2.767
	상대적 경제안정	.010	.095	.010	.107
	일	.194*	.088	.172	2.195
	주거	.054	.083	.045	.648
	교육충분정도	-.024	.066	-.022	-.361
탈물질 요인	건강	.190*	.075	.169	2.543
	가족관계	.200*	.084	.181	2.391
사회 관계적 요인	정치 효능감	.010	.054	.012	.191
	공동체 참여(가치)	-.040	.071	-.034	-.563
	사회 신뢰	.182*	.078	.175	2.316
	정부 신뢰	-.076	.080	-.079	-.956
사회 시스템 요인	일과 여가의 균형	-.062	.085	-.060	-.729
	계층상승 가능성	.091	.084	.085	1.090
	공정성	.059	.097	.046	.605
성별(1남성 2여성)		.258*	.115	.128	2.244
학력		.011	.118	.006	.095
소득		.026	.101	.018	.257
경제적 지위(낮을수록 상층)		-.070	.092	-.063	-.758
수도권		-.058	.280	-.029	-.207
대전충청		-.282	.318	-.083	-.886
광주전라		-.022	.321	-.007	-.068
대구경북		-.061	.322	-.018	-.188
부산울산경남		-.337	.298	-.125	-1.132
R		.749 <sup>a</sup>			
R 제곱		.561			
수정된 R 제곱		.501			
F		9.242			

#p<.1 \*p<.05 \*\*p< .01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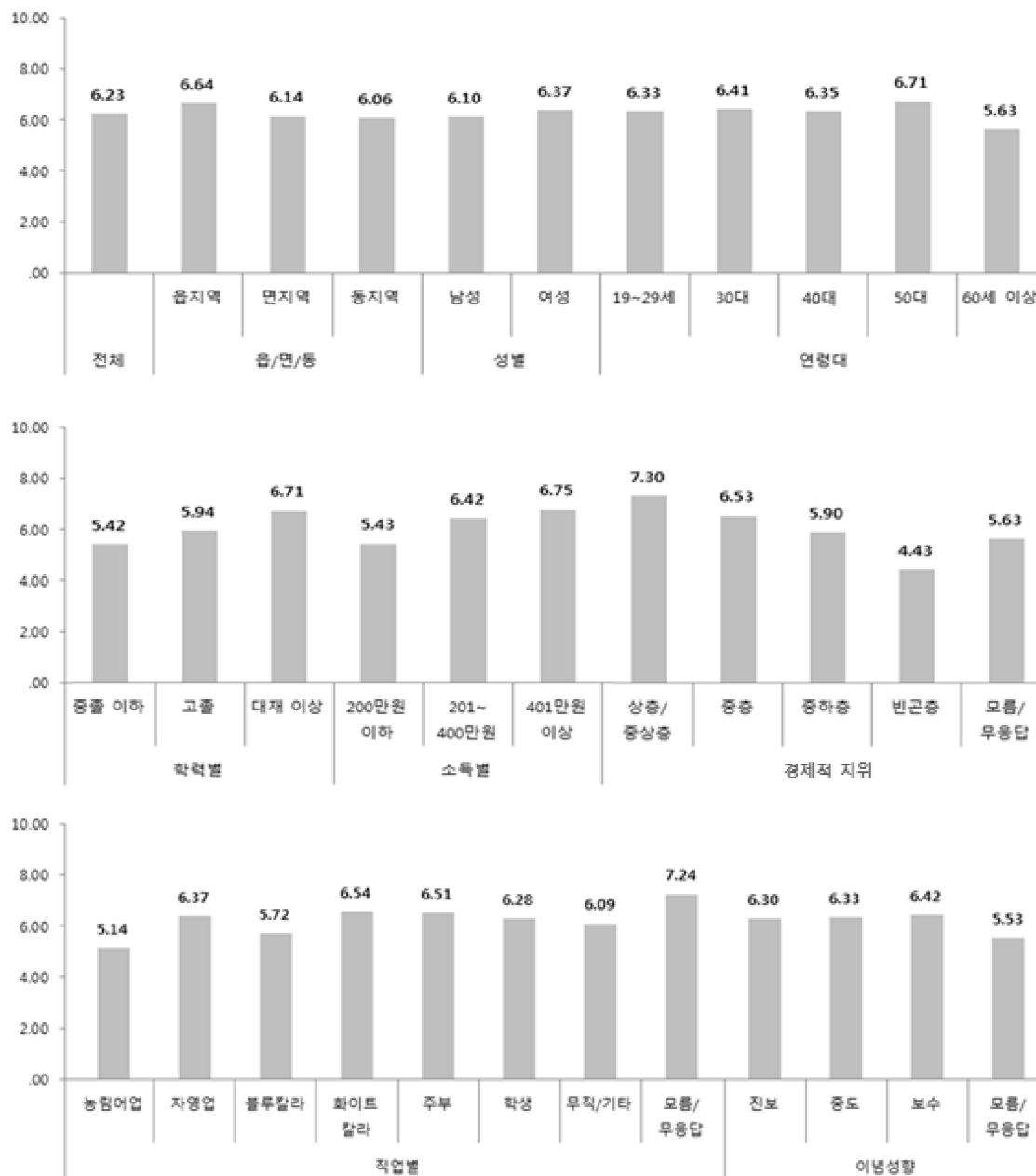
## 4. 충청도민의 행복

### 1) 행복수준 비교

#### (1) 집단별 행복 격차

충청남도 구성원들이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 6.23점(최저 0점, 최고 10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8> 충청남도\_현재 주관적 행복감



성, 연령, 계층 등에 따라 개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도 차이가 났음. 읍지역 도민들이 면지역과 동지역 도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좀 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50대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 20대, 60세 이상 순이었음.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커졌음. 소득은 물론 자산까지 고려한 경제적 지위도 상층으로 갈수록 행복수준이 상승했고, 빈곤층으로 갈수록 급락했음. 중상층 이상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이 7.30점, 빈곤층에서는 4.43점으로 중간보다 낮았음. 중상층 이상과 빈곤층의 행복격차가 전국조사보다 크게 나타남.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주부층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층은 농림어업층이었음.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행복수준도 다르게 나타나 보수>중도>진보 순으로 행복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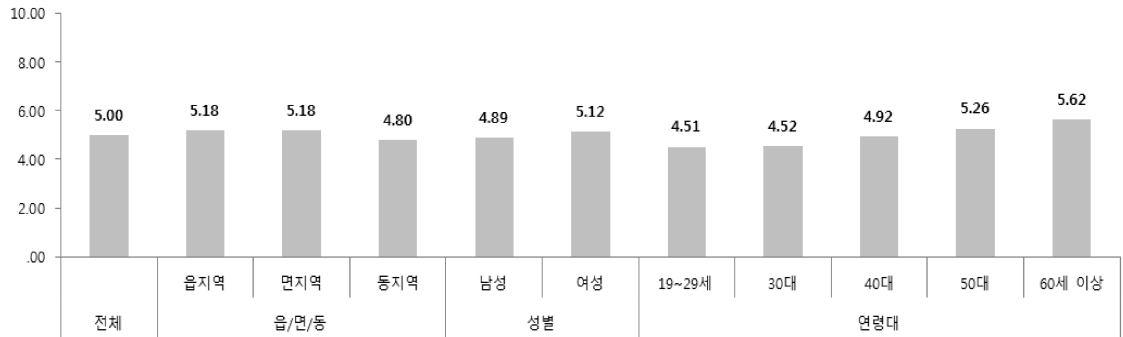
충청남도에서 주관적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50대, 대졸 이상 고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이상의 중상층 이상, 화이트칼라, 주부층 등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60세 이상,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의 중하층, 농림어업층 등임.

(2) 우리사회의 행복수준

충청남도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재 행복감은 6.23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행복정도는 5.00점으로 중간수준이었음. 구성원들이 느끼는 개인차원의 행복감과 사회적 차원의 행복수준의 괴리가 다소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우리사회가 행복한 사회에 가깝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층은 여성, 50대 이상 고연령층, 중졸 이하 저학력층, 주부와 농림어업층 등임.

<그림 9> 충청남도\_사회적 행복정도





모든 연령층 중 주관적 행복감과 이들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행복정도 간 차이가 가장 큰 층은 20대로 전국 조사와 비슷했음.

<표 17> 충청남도\_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의 질’ 평가 비교

		주관적 삶의 질(A)	사회의 질(B)	A-B
전체		6.23	5.00	1.23
읍/면/동	읍지역	6.64	5.18	1.46
	면지역	6.14	5.08	1.06
	동지역	6.06	4.85	1.21
성별	남성	6.10	4.78	1.32
	여성	6.37	5.22	1.15
연령	19~29세	6.33	4.51	1.82
	30대	6.41	4.81	1.59
	40대	6.35	4.80	1.55
	50대	6.71	5.13	1.57
	60세 이상	5.63	5.52	0.11
학력	중졸 이하	5.42	5.41	0.01
	고졸	5.94	4.87	1.07
	대재 이상	6.71	4.87	1.84
소득	200만원 이상	5.43	5.09	0.34
	201~400만원	6.42	5.09	1.33
	401만원 이상	6.75	4.92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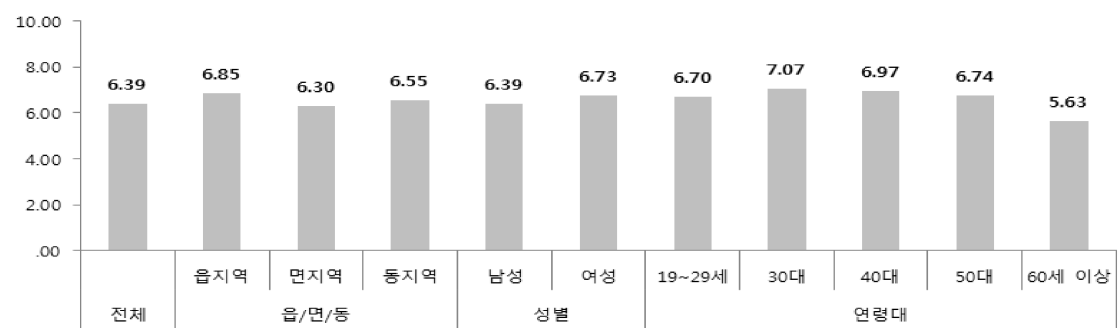
(3) 미래 행복 기대감

개인들이 현재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6.23점이었지만 미래 기대하는 행복감은 6.56점으로 다소 상승함. 현재보다는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현재보다 미래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아지리라는 기대심리는 여성, 동지역, 30대와 40대, 대재 이상 고학력층, 고소득층, 자영업, 화이트칼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60세 이상과 농림어업층은 현재의 주관적 행복감과 미래의 행복감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저학력층과 학생 집단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0> 개인의 미래 주관적 행복감



<표 18> 충청남도\_주관적 행복감 비교 :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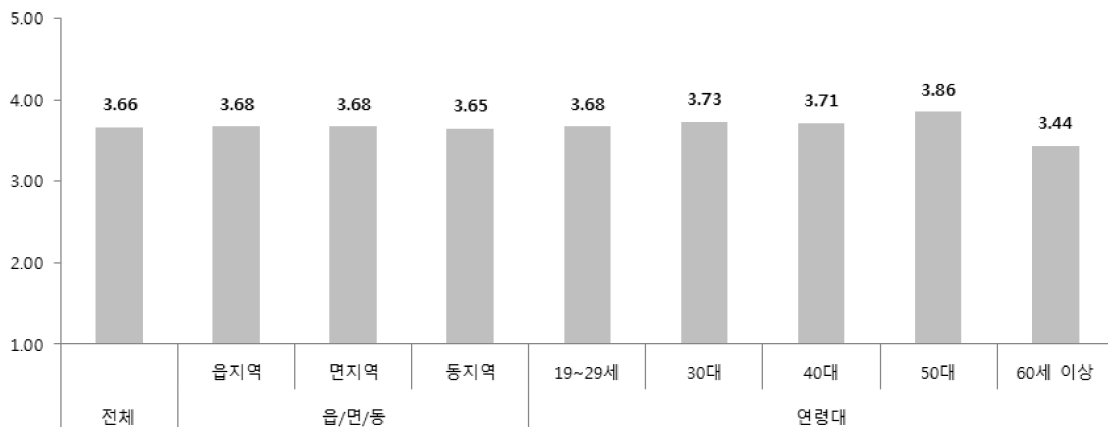
		현재 주관적 행복감(A)	미래 주관적 행복감(B)	B-A
전체		6.23	6.56	0.33
읍/면/동	읍지역	6.64	6.85	0.21
	면지역	6.14	6.30	0.16
	동지역	6.06	6.55	0.49
성별	남성	6.10	6.39	0.29
	여성	6.37	6.73	0.36
연령	19~29세	6.33	6.70	0.37
	30대	6.41	7.07	0.66
	40대	6.35	6.97	0.62
	50대	6.71	6.74	0.04
	60세 이상	5.63	5.63	0.00
학력	중졸 이하	5.42	5.37	-0.05
	고졸	5.94	6.22	0.28
	대졸 이상	6.71	7.19	0.48
소득	200만원 이상	5.43	5.60	0.17
	201~400만원	6.42	6.68	0.26
	401만원 이상	6.75	7.18	0.43

반면 충남지역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원의 행복정도는 현재(5.00점)와 미래(5.01점)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 현재 행복정도는 ‘행복하다’ 60.9%, ‘비슷하다’ 31.0%, ‘행복하지 않다’ 8.1% 등으로 나타남.

상대적 주관적 행복감은 50대, 고학력, 고소득,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별로는 학생,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집단에서 상대적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1> 개인의 상대적 행복감



## 2) 행복 구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

### (1) 행복 구성 항목 비교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14개 항목별로 각각에 대해 주관적 만족도 및 평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공동체 가치 중시, 주거 만족도, 일 만족도, 건강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우리사회의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공정성에 대한 평가, 정부 신뢰도, 정치적 효능감 등은 중간 이하의 낮은 평가에 머무르고 있었음.

<그림 12> 행복 구성 항목 만족도 비교



### (2) 행복 구성 항목의 범주별 비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물질요인, 탈물질요인, 사회관계요인, 사회시스템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탈물질요인이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질요인이 3.28점으로 그 다음 순으로 높았음. 반면 사회관계요인은 2.94점, 사회시스템요인은 2.84점으로 중간 이하로 나타남. 대체로 개인적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의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국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냄.

## □ 읍면동

네 가지 요인에 대한 읍/면/동 차이는 물질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물질요인에서는 면지역, 동지역보다 농촌지역인 읍지역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음.

##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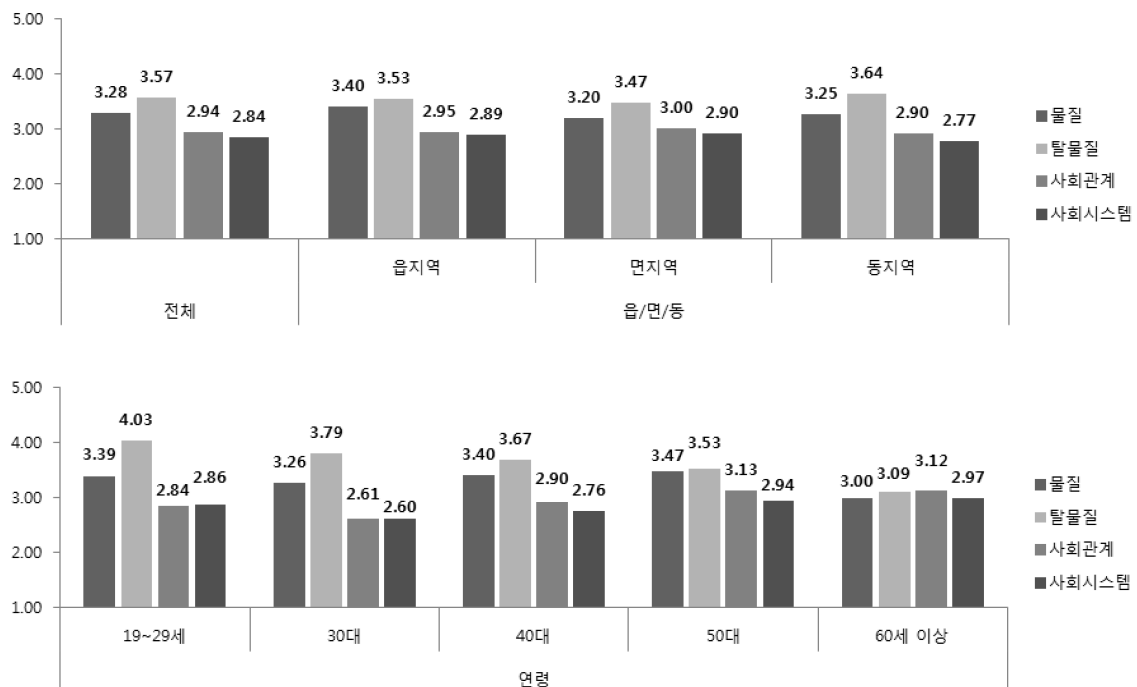
연령별로 네 가지 요인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남. 물질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 40대, 20대, 30대, 60세 이상 순으로 낮았음.

탈물질요인 만족도는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탈물질요인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에서 탈물질 요인을 구성하는 건강과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평균 이하인 점을 봤을 때, 건강불안, 배우자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사회관계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세대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남.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매우 낮았음.

사회시스템 요인에 대한 만족도도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에서 낮았음. 30대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장 강한 층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13> 물질/탈물질/사회관계/사회시스템 평균점수 비교



### 3) 행복결정요인 분석

#### □ 주관적 행복감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 결과 절대적 경제안정성, 주거, 가족관계, 일과 여가의 균형, 연령, 읍/면/동 등과 같은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물질적 요인에서는 절대적 경제안정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관계, 일과 여가의 균형 등과 같은 탈물질적 요인의 영향력도 높게 나타남. 인구특성 및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는 연령과 읍/면/동 요인이 유의미했음. 연령이 높을수록, 동지역에 비해 읍지역에 거주할수록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졌음.

<표 19> 충청남도\_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33	.499		.668
물질 요인	절대적 경제안정	.150*	.058	.136	2.558
	상대적 경제안정	.014	.009	.083	1.501
	일	.002	.005	.023	.486
	주거	.255***	.058	.242	4.408
	교육충분정도	-.008	.005	-.072	-1.575
탈물질 요인	건강	-.014	.054	-.014	-.254
	가족관계	.204***	.060	.185	3.381
사회 관계적 요인	정치 효능감	-.006	.004	-.085	-1.474
	공동체 참여(가치)	.001	.003	.017	.331
	사회 신뢰	-.003	.005	-.039	-.587
	정부 신뢰	.005	.006	.049	.816
사회 시스템 요인	일과 여가의 균형	.175**	.059	.163	2.950
	계층상승 가능성	-.005	.004	-.061	-1.167
	공정성	.001	.004	.013	.279
성별(1남성 2여성)		.151	.093	.075	1.623
연령		.079#	.042	.108	1.856
학력		.086	.080	.068	1.075
소득		.015	.070	.012	.216
경제적 지위(낮을수록 상층)		-.038	.062	-.033	-.606
면지역		-.051	.123	-.022	-.416
동지역		-.207#	.110	-.102	-1.890
R		.607 <sup>a</sup>			
R 제곱		.369			
수정된 R 제곱		.330			
F		9.422			

#p<.1 \*p<.05 \*\*p<.01 \*\*\*p<.001

### III. 결론

#### 1. 요약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40대, 대재 이상 고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 4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지위 중상층, 화이트칼라, 주부층 등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지위 중하층, 자영업층 등임.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토대로 행복을 구성하는 14개 항목을 추출해 물질요인, 탈물질요인, 사회관계요인, 사회시스템요인 등 4개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비교 분석했음. 네 가지 범주별 평균 만족도는 탈물질요인이 3.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질요인이 3.28점으로 그 다음 순으로 높았음. 반면 사회관계요인은 2.94점, 사회시스템요인은 2.85점으로 중간 이하로 나타남. 개인적 차원에 관계된 요인은 비교적 높은 데 반해, 사회적 차원의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낮았음.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절대적 경제안정성, 상대적 경제안정성, 일, 주거 등과 같은 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이 비교적 중요하게 나타남. 그 외 가족관계, 일과 여가의 균형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 요인도 중요하게 나타나 물질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가운데, 탈물질적 가치 중시 등 새로운 변화 흐름이 드러남. 한편 행복에 있어 사회신뢰의 영향력이 물질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의 낮은 사회 신뢰도가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사회적 행복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신뢰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공정성 등과 같은 사회시스템 관련 요인의 영향력도 컸음.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사회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20> 성·연령별 행복 영향요인 및 항목별 만족도

	영향요인	4개 요인별 만족도 차이
남성	경제안정성, 일, 주거, 사회신뢰, 계층이 동기화여부	탈물질요인에 대한 만족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큼
여성	경제안정성, 건강, 가족, 사회신뢰, 일과 여가의 균형	
20대	공동체참여에 대한 가치부여, 사회신뢰, 정부신뢰(-), 일과 여가의 균형	탈물질요인 만족도 매우 높음. 사회관계, 사회시스템 평가 낮음
30대	주거, 가족관계, 일과 여가의 균형, 소득(-)	물질만족도 높고, 사회시스템 평가 가장 낮음. 사회관계 평가도 낮음
40대	경제안정성, 일, 건강, 가족관계, 사회신뢰	물질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50대	경제안정성과 정치효능감	사회관계 만족도 높은 편
60대	경제안정성과 가족관계	물질, 탈물질 만족도 낮고, 사회관계, 사회시스템 평가 높음

성, 연령별에 따른 행복 영향 요인, 행복에 영향을 주는 14개 항목을 물질요인/탈물질요인/사회관계요인/사회시스템요인 등으로 구분해 각 범주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0>과 같음.

## 2. 함의

### 1) 청년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

분석 결과 대체로 35세 미만 젊은층이 40대 이상 중장년층보다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사회가 청년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청년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낮은 사회신뢰, 정부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컸음. 반면 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청년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시스템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신뢰할만한 사회로 만들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청년이 살만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통해 이 사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 및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2) 경제적 지위에 따른 행복 격차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 즉 경제적으로 살만한 중상층과 빈곤층 사이의 행복격차가 큼이 확인됨.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경제불평등이 행복불평등 및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3) 한국에서는 물질요인이 여전히 강력해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일과 여가의 균형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 요인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경제안정성, 상대적 경제안정성, 일, 주거 등과 같은 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함.

국민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가족, 공동체 등과 같은 탈물질적 요인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불평등한 경제구조,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개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이 크기 때문으로 보임. 특히 노후에 대한 강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 보임.

#### 4)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불만족

물질요인, 탈물질요인, 사회관계요인, 사회시스템요인 등 4개 요인에 대한 절대적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개인적 차원과 관련된 요인은 비교적 높고, 사회적 차원의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낮게 나타남.

이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불만 및 부정적 평가들이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어 경제적 안정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보다 사회적 신뢰 회복 등 사회적 차원의 변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임.

#### 5) 낮은 사회적 행복도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재 행복감(주관적 웰빙, 삶의 질)은 6.33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행복정도(사회적 웰빙, 사회의 질)는 4.96점으로 중간 이하였음. 구성원들이 느끼는 개인 차원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 간 괴리가 적잖음을 알 수 있음.

개개인은 살만하지만 사회는 살만하지 않다는 이 같은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행복담론이 개별적, 주관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함. 즉 좋은 삶, 좋은 사회에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담론도 이러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임.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사회신뢰는 절대적 경제만족도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사회는 개인의 기회구조는 물론 공정한 경쟁과 보상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이 점에서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우리사회가 살만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행복감 저하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6) 집단별/연령별 행복 정책 필요

각 연령별 행복 영향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남. 20대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큰 데 반해, 30대는 탈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고, 50대 이상에서는 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큼. 이러한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 행복 조사(전국 1000명 / 충남 400명) 설문동일

1.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불행하면 0점, 보통이면 5점, 매우 행복하면 10점으로 했을 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 5년 후 선생님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매우 불행하면 0점, 보통이면 5점, 매우 행복하면 10점으로 했을 때 몇 점으로 예상하십니까?
3.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의 현재 삶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떤 편입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②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비슷하다
  - ④ 비교적 행복한 편이다
  - ⑤ 매우 행복하다
4.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것 같습니까? 매우 불행하면 0점, 보통이면 5점, 매우 행복하면 10점으로 했을 때 몇 점으로 예상하십니까?
5. 5년 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매우 불행하면 0점, 보통이면 5점, 매우 행복하면 10점으로 했을 때 몇 점으로 예상하십니까?
6. 현재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② 별로 만족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7. 주변사람들과 비교할 때 선생님의 경제적 안정성은 어떤 편입니까?
  - ①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
  - ② 별로 안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 ⑤ 매우 안정적이다
8.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일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② 별로 만족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9.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② 별로 만족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10. 선생님의 건강상태는 어떤 편입니까?

- ① 매우 안 좋다
- ②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좋은 편이다
- ⑤ 매우 좋다

11. 일과 여가 등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② 별로 만족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12.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② 별로 만족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13. 선생님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을 얼마나 충분히 가지고 계신지요?

- ①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 ② 별로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 ⑤ 매우 충분하다

14. 선생님은 투표 등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 ① 전혀 바꿀 수 없다
- ② 바꾸기 어려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 ⑤ 많이 바꿀 수 있다

15. 선생님께서는 지역사회 참여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가치 없는 일이다
- ② 별로 가치 없는 일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일이다
- ⑤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16.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②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
- ⑤ 매우 신뢰할 수 있다

17. 우리나라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신뢰한다
- ⑤ 매우 신뢰한다

18.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려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열려있지 않다
- ② 별로 열려있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열려있는 편이다
- ⑤ 매우 열려있다

19. 우리사회에서 능력과 노력에 맞는 보상이 얼마나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 ② 별로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공정한 편이다
- ⑤ 매우 공정하다



## 2015 행복컨퍼런스 토론회

변 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사회학)

### 공공부문의 행복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위한 정책 지향 답아야

공공정책이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지향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 발전수준 =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던 일반적 기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로, 이 보고서의 출현으로 전 세계의 성장은, 한 국가의 성장은, 한 도시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며, 사람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 메가시티는 ‘양적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도시 발전을 지향

전 세계 대도시들은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 할 것인가, 즉 사회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도시의 경쟁력이 단순히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미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 발전국가의 도시가 갖는 위상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입 없이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메가시티의 행복 영향 요인은 인적자원, 건강, 주관적 만족감,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순

세계 메가시티나 국가의 사람들이 행복 영향 요인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은 인적자원 역량으로서의 학력이나 기술 요소와 건강, 주관적 만족감과 일과 삶의 균형 요소 등이었다. 특히 소득 요소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OECD Better Life Initiative 11개 영역 중 자신들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건강, 소득,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주관적 만족감 순이었다.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요소별 가중치 요인과 유사 패턴을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 폴란드, 룩셈부르크로 나타났다. 한편, 가중치 서열 유형에서 서울과 유사도가 가장 먼 나라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이다.

##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결정요인은 물질적 요소가 우세하나 주관적이고 인지적 요인 역시 중요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삶의 성취도, 미래안정성, 생활수준, 직업 만족도 순으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삶의 성취도는 삶의 질에 관한 변수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에서의 계층 지위와 사회적 성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물질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미래안정성과 생활수준 역시 물질적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 행복감의 증가분을 설명하는 변수 중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감 증가분보다는 다른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들(주관적 계층소속감, 계층이동 가능성, 생활영역별 주관적 만족도)과 신뢰 요소가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 한국사회의 행복한 삶,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높은 사회를 위한 다차원적 접근 필요성

우리는 이번 발표문을 통해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소 뿐 아니라 주관적이고 인지적 요소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민행복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혹은 사회 공동체의 태도와 인지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행복의 질(質)과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행복제고를 위한 여러 측면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시민과의 소통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이다.

한편, 서울시의 사례나 이번 발표문에서 분석된 자료를 보더라도 분석 단위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자치구과 가구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 간에는 지역민에 미치는 행복영향 요인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정책의 공공성과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정책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발전단계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이익을 넘어 유익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공론의 장에서 정부영역, 시민영역, 전문가 영역 등이 상호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소통을 위한 자료의 생산(모니터링, 지표, 다차원분석 등)이 필요하고, 그 소통의 결과물로서 자료의 축적이 이뤄진다면(예, 정기적인 국가/도시행복보고서, 행복영향평가 등) '보다 나은 공동체 삶'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문】

###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인간 존엄의 가치입니다

이 영 문(국립공주병원)

#### 1. 서론

고승희 선생님과 한귀영 선생님의 귀중한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행복에 관한 정책연계방향을 발표하신 고승희 선생님의 원고에서 무엇보다 행복지표를 사회적 지표와 경제적 지표의 관점에서 국제 기준과 맞추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표 내부에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 척도를 어떻게 전체 지표와 연결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겠되었습니다.

한귀영 선생님 원고에서는 정책 개발을 위한 행복조사를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 하는 어려움과 객관성을 얻었습니다. 지역적으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역에 부합한 주제가 뚜렷하다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집단의 의사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집단이라는 객체를 개인과 분리하여 정의할 수 없기에 저는 주로 정신건강과 사회적 행복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2. 정신건강과 행복

우선, 정신건강이라는 정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흔히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한다고 믿는 정신병리가 어떻게 정상의 범주에 속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것은 지난 150년간 정신의학의 존재론으로 연결이 될 정도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칼 야스퍼스의 실존적 정신병리로 살펴보자면,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정신병리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실존이 전제되지 않은 정신질환은 없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모두 불행하다고 성급히 결론내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입장이 분명할수록 인간은 행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량화, 혹은 정량화할 수 없는 인간 마음의 장치를 객관화시키고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치료를 넘어 이제는 회복이라는 주관적 지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평가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행위를 바라보던 관점이 당사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내부 만족과 평가로 바뀐 것이지요. DOING의 관점이 BEING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 피평가자의 존재감을 넘어설 수 없다는 대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재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68%가 주관적 행복감을 나타낸 연구가 있습니다. 병을 앓는 초기와 중기, 안정기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평가자나 치료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시사합니다.

### 3. 행복과 자살

행복이라는 것은 규격화하거나 정량화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정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작업을 통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신념이 대상자로부터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행해지는 치료행위와 사회구성원에게 제시되는 정책적 행동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10만명당 27명, 13800여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여전히 획기적인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 경제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담론, 정신건강에 대한 담론이 여전히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정신건강 지표, 그 중에서 자살률은 사회적 지표 중에서 인간 행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실질적인 정책에 충분하게 포함되지 못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군대내 자살이나 교육현장에서의 자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회로부터 격리된 폐쇄공간에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교도소, 군대, 학교(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상황), 직장 등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폐쇄공간은 사회시스템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가치체계로 존재하고 그 내부의 조직과 운영방식이 다르며 이를 통해 그 구성원들을 지배합니다. 이 같은 지배이데올로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적응을 요구합니다. 사소한 개인적 행위는 금지되기 일쑤이며 조직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필수적입니다. 인간으로서 느껴야 할,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억압되거나 무시됩니다. 억압된 감정과 생각들은 인간의 내적 평형성을 저해하고 신체와 정신의 균형상태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기체 내부의 질서가 요구됩니다.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존재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은 외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정의 측면에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대내 폐쇄공간은 외적인 지원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적 평형성을 잃은 개인에게 신체적 질병과 정신질환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살사고는 사회로부터 유리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학교, 교도소, 군대, 직장 내 자살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약성이 사회구조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는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측면을 무시한 채, 행복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모순에 불과합니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생물학적인 질병의 요소를 담고 있고, 사회적 압력,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됩니다. 우리 사회가 자살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편협한 개인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라는 큰 유기체로서 담아내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모병제도의 적극적 도입, 무상의료 실현(18세 이하와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과 교육정책의 획기적 변화, 직장내 피고용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등이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 4. 행복과 인간존엄성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타당성을 획득하고 사회속에서 고립되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그 결과 느껴지는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간존엄성을 인정받으려는 긴 여정이 삶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행복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혹은 누려야 하는 가치이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지만, 행복은 지극히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적정한 선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어른을 위한 정책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경제적 성취도를 쉽게 가질 수 있는 계층보다 가질 수 없는 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존엄성이 쉽게 훼손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 회복력, 레질리언스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인간존엄성의 가치입니다. 개인의 존엄성이 하나씩 모여 사회공동체를 구성합니다.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한 공동체 건설에 있어야 하며, 사회정의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표가 경제적 지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재화로 연결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느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 사회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할 때입니다.

